

사람과 은혜가 충만한 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의지하여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대도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 미주크리스천신문

## The Korean Christian Press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23년 6월 10일 (토) 제 1924 호

□ L.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Email: nychpress@gmail.com

### 자신이 설교한 은혜를 삶을 통해 실천한 설교자

#### CT, "점점 분열이 가속되는 시대에, 목사이자 신학자로서 그가 남긴 유산은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더 높은 길을 걷는 것이었다."

지난 5월 19일 리더머 장로교회의 목회자, 사역자이자 기독교 변증가인 팀 켈러 목사가 세상을 떠나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다. 그는 '복음만이 모든 것을 바꾼다'며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복음이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선포하고 살아내야 하는지 그의 삶을 통해 보여줬다. CT는 그를 추모하며 그의 삶을 재조명해 보았다.



개혁신학과 공적 증인 분야에서 카이퍼 상의 수상자로 팀 켈러보다 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 상은 높은 경력을 쌓아온 수상자에게만 주어지는 상이다. 팀 켈러는 1989년 아내 케이시와 함께 미국 맨하탄 리더머 장로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여 말씀을 전하면서 미국 문화의 중심부인 뉴욕에서 개혁신학을 전해왔다. 카이퍼의 소명 신학을 가지고 저술한 당신의 영광을 위해 '모든 영역'을 창조하였음을 밝히는 켈러의 글은 하나님에 대한 그의 비전을 전 세계 새로운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소개하는 계기가 됐다. 그러나 2017년 켈러가 강단에서 물러났을 때, 1989년 이후

미국 문화가 얼마나 변화했는지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의 많은 학생들과 동문들의 반응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켈러의 여성 목회자 안수와 동성애에 대한 견해는 더 광범위한 문화적 경계선은 말할 것도 없고, 프린스턴 신학대를 비롯한 주요 신학교의 지배적인 규범에 역행하는 것이었다. 이 기준을 따른다면, 아브라함 카이퍼 역시 자신의 이름을 딴 상을 받을 자격이 없었을 것이다. 여러 도발적인 단체의 압력으로 프린스턴 신학대의 리더들은 켈러에게 2017 카이퍼 상(이후 칼빈 대학이 주관하고 있는 상)을 수여하기로 한 결정을 철회했다. 계속 확장되는 문

화 전쟁 속에서 영향력 있는 목사 한 명이 또 다른 희생자가 된 것처럼 보인다. 혹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팀 켈러는 수상하지 못했지만, 프린스턴 신학대에서 약속되었던 강의를 하는 것에는 동의했다. 비록 프린스턴 신학대는 그에게 상을 수여하기를 원치 않았지만, 켈러는 이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여러 시위가 계속됐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4월 6일 켈러가 강단에 올랐을 때 사람들은 열렬한 박수로 그를 환영하며 맞이했다. 프린스턴 신학대 원장 크레이그 반스가 마무리 인사를 하기 위해 강단에 섰을 때, 그는 다시 한번 메시지를 받았다. (3면으로 계속)

### KPCA 제47회 총회... "하나되게 하소서"

총회장에 서명성 목사, 부총회장에 박태겸 목사, 김재수 장로



KPCA 총회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해외한인장로교회(KPCA) 47회 정기총회가 '하나 되게 하소서(요 17:20-26)'라는 주제로 지난 5월 16일(화)부터 18일(목)까지 남가주동신교회(담임 백정우 목사)에서 개최됐다. 이번 총회에는 미국과 캐나다, 중남미, 유럽, 호주, 일본, 뉴질랜드 등의 국가에서 250여 명이 대면으로, 80여 명이 비대면으로 참석했다. 첫날 진행된 임원선거에서는 직전 부총회장인 서명성 목사(팔로마한인교회)가 신임 총회장으로 추대됐다. 신임 총회장 서명성 목사는 "세속화의 파도와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로 목회 상황이 어느 때보다 힘들어진 격변기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가 본질에 충실한 총회, 건강한 총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모든 총대들이 주 안에서 진정한 일치와 연합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총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서명성 목사(67)는 MIT에서 Ph.D 학위를 받은 엔지니어 출신 목회자다. 1991년부터 신학에 입문해 풀러신학교에서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Th.M), 철학박사(Ph.D) 학위를 각각 취득했다. 그는 1995년 샌디에이고 북부지역에 교회를 개척해 28년째 목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어 진행된 목사 부총회장 선거는 후보공천이 되지 않아 현장에서 추천을 통해 부회장을 선출했다. 부총회장은 박태겸 목사(캐나다동노회, 캐나다 동신교회)와 김경수 목사(중앙노회, 약속의교회)가 경합 끝에 박태겸 목사가 선출됐다. 장로 부총회장에는 김재수 장로(브라질 상파울루연합교회)가 선출됐다. 그 외 임원연합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회, 부서기 신현철 목사(캐나다서노회), 회록서기 김광진 목사(서북남노회), 부회록서기 노영호 목사(서노회), 영문회록서기 조수아 강 목사(영어노회), 회계 한성수 장로(뉴욕노회), 부회계 안병구 장로(뉴저지노회) 등이 선출됐다. 한편 첫날 개최예배는 서명성 목사의 사회와 박상근 목사의 '모리아산으로 가는 길(창 22:1~14)'이라는 제목의 설교로 진행됐다. 박 목사는 설교에서 "여호와 이레는 성경에 약속된 말씀 중에 정말 귀한 말씀이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준비하실 것"이라며 "우리 생애의 모리아산에서 이삭까지도 가까이 찢려 바치는 결단을 통해 여호와 이레를 진정으로 체험하며 사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이 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11면으로 계속)

- 3면: 시론 은희곤 목사
- 4면: 푸른초장 정운명 목사
- 13면: 교회신앙의 선순환 조영중 선교사
- 16면: 베드로전서 김경진 목사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퍼스온라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윤새롬 치과**  
Nouvelle Dental  
Lily Yoon DMD / 원장 윤새롬  
T. 917-908-0075  
154-08 Northern Blvd 2H, Flushing, NY 11354  
YOON.DENTAL154@gmail.com | WWW.LILYMD.COM

Sharing Bread for Soul **월드쉐어USA**  
Sharing Bread for Soul (SBS) 생명의 빵 나누기 운동  
말씀과 빵을 나누며 영혼을 살립니다  
문의 강태광 목사 (323)578-7933

www.laguesthouse.com  
**LA 호텔식 하숙**  
GUEST HOUSE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김스전기양)  
TEL. 213-663-9181  
965 Fedora St. L.A., CA 90006  
Email: laguesthouse@live.com

하나님의 뜻이 충만하게 완성되는 시간  
**플레루**  
FleuRue  
김성국 지음

## 플레루 FleuRue 김성국 목사 신간 컬럼집

### 당신은 어떤 시간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시간에는 세 종류의 시간이 있습니다.

**크로노스:** 흘러가는 일상의 시간입니다. | 다윗이 목동으로 지내던 시간  
**카이로스:** 일상의 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시간입니다. |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시간  
**플레루:** 하나님의 뜻이 충만하게 완성되는 시간입니다. | 다윗이 마침내 왕이 된 시간

하나님은 크로노스로 살고 있던 우리에게 카이로스 찾아가셨습니다. 그 카이로스만도 감사한데 플레루의 충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 개입하시고 또 충만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어떤 크로노스를 지난다고 하여도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와 플레루가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 하나님의 뜻이 충만하게 완성되는 시간 플레루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책을 읽고 있으면 사랑 가득한 목사님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느껴집니다. 문장마다 목사님의 호흡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얼굴 표정이 보이기도 합니다.

류영렬 목사 | 와싱턴중앙장로교회 담임목사

**Hisfinger**  
히즈핑거는 주님의 손가락처럼 기독교 문화와 문학에 쓰임 받고자하는 미주크리스천신문사의 문화출판사 이름입니다.

구메문의 : 미주크리스천신문사 (718) 886-4400 HISFINGER8386@GMAIL.COM

발행인 칼럼

내편은 아버지 밖에 없구나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리비아 사막의 대수로 건설, 세계 8대 불가사의(不可思議) 라고도 불렀던 대공사 이야기는 가끔 듣기만 해도 한국인의 자부심으로 가슴이 벅차곤 했다.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은 동아그룹의 최원석 회장이었다. 그는 올해 80세이다. 시한부 선고를 받고 힘든 나날을 지내고 있는 것 같다. 그는 지금 위세 등등한 재벌 회장이 아니다. 기업을 다 잃어버리고 회한(悔恨)을 품고 사는 평범하다 못해 그저 초라한 노인일 뿐이다. 스스로의 잘못된인지 권력자에게 밉보여서인지 알 수는 없어도 지금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다. 동아그룹뿐 아니라 하루 아침에 사라졌던 다른 여러 기업들을 생각하면 제 3자요 멀리 있는 나도 지금까지 마음이 편치 않다. 그들이 어려울 때 누군가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도와주었다면 그 기업도, 대한민국도, 무엇보다 그 권력자의 역할도 커지지 않았을까 라는 상상(想像)을 해보았다. 세우기는 힘들어도 허물기는 쉬운데 짧은 힘을 가진 권력자들이 자기 입맛에 따라 오래 일군 기업들을 쉽게 주저앉히고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떠나는 일은 정말이지 없어야 한다.

늘그막한 최원석 회장의 인터뷰 영상을 보게 되었다. 그 영상을 본다면 그의 다소 어눌하고 짧은 말에 많은 사연과 사건들이 묻혀 있음을 누구라도 알 수 있으리라. 그의 인터뷰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었다. '내편은 아버지 밖에 없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대적했겠는가. 더욱 마음이 아팠을 것은 그의 측근마저 등을 돌릴 때였으리라. 그의 전 삶을 관통하는 것은 아버지였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그의 아들이 세상에서 극심한 환란을 당할 때에 이 세상에 없으셨다. 아무리 아버지가 자기편이었다고 백편이나 확신하여 말한다 해도 그 아버지가 물려준 것들 온갖 어려움 속에서 실제로 잘 지켜내야 할 것은 오히려 자기 몫이었다. 결국 그 싸움에서 아들은 졌다. 안타깝게도 현실의 문제에서 아버지는 아무런 도움을 그 아들에게 주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 현실을 넘어서 고백, '내편은 아버지 밖에 없구나.' 라는 고백만으로도 모든 현실의 아픔을 넉넉히 견딜 수 있는 것 같았다.

"왼 발, 오른 발, 왼 발, 오른 발" 구령소리가 울려 퍼지는 훈련소의 제식 훈련 가운데 자기 아들도 있어 참관한 아버지가 있었다. 모든 훈련병들이 다 왼발을 내밀 때 자기 아들은 오른 발을 내미는 것이었다. 다른 모든 훈련병이 오른 발을 내밀 때 자기 아들은 왼발을 내미는 것이었다. 그 광경을 본 아버지는 아들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다른 훈련병들을 향해 허까지 찼다. "내 아들 혼자 맞고, 다른 녀석들은 모두 틀렸네, 쫓쫓" 그렇다. 아무리 자식이 틀려도 아버지만은 그 자식 편이고, 그 자식이 예뻐 보이고, 그 자식의 모든 것을 품는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이 끊어질 그 날이 있다. 온 세상이 나를 버리는 날이 반드시 온다. 그 때 누가 끝까지 남아 내편이 되어 줄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는 끝까지 내 편이시다. 그러면 되지 않겠는가. 농구할 때 마이클 조던과 한 편이 되는 사람을 누가 이기겠는가. 축구할 때 메시와 한 편이 되는 사람을 누가 꺾겠는가. 살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과 한 편이 되는 사람을 누가 무릎 꿇리겠는가. 그러나 하나님과 한 편이 되어 사는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도 서러워 말아야 한다. 놀라지 말아야 한다. 당당히 이렇게 말하면서 승리를 확신해야 한다. "내편은 아버지 밖에 없구나."

보상이 올라도,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은 게 인간 본능일지도...

BBC, 역대 연봉을 받아도 만족하지 못하는 급여와 인간 욕망의 상관 관계 설명

샘(고용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성은 미공개)은 지난해 사모펀드 기업 내 재무 부서에서 일하며, 기본급으로 약 20만 달러를 받았고 보너스로 10만 달러 정도를 받았다.

올해 34세인 샘은 뉴욕에 산다. 뉴욕은 가구 평균 소득이 약 7만 달러 정도다. 이런 뉴욕에서 샘이 사는 아파트는 맨해튼 트라이베카 지역에 있다. 뉴욕에서 가장 집값이 비싼 곳으로 꼽히는 지역이다. 샘은 일 년에 몇 차례 친구들과 여행을 간다. 일주일에 여러 차례 레스토랑에서 외식을 하면서도, 월급 일부는 저축을 할 정도의 여유가 있다.

샘도 자신의 연봉이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하지만 충분히 높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미국 전체와 비교하면 내

가 소득 상위권에 속하는 것은 분명하고, 매우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지금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런 게 인간의 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샘이 현실 감각이 좋은 것일 수도 있다. 인플레이션, 인력 채용 경쟁 등 최근의 경제 상황 속에서 고용주들은 임금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임금 인상만으로는 일부 노동자, 특히 계속해서 승진하길 원하는 지식 노동자들을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할 수 있다고 말한다. 실제로 평균 국민 소득의 상위층에 속하는 많은 이들이 자신의 수입에 완전히 만족할 가능성은 적다는 학계의 연구도 있다(Why workers may never be satisfied with their pay).

상대성이 중요하다

샘과 같은 이들이 비교적 높은 현재 급여 수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한 가지 설명은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는 것이다. 이때 그들이 자신과 비교하는 '다른 사람'은 보통 일상에서 매일 접하는 소수의 선택된 집단이다.

매사추세츠 밥슨대학의 조직행동학 교수인 다나 그린버그는 "우리는 더 넓은 인구 집단이 아닌 직접적인 준거 집단과 자신을 비교한다"며 "어떤 사람이 소득 상위 1%에 속한다면 소득 친한 친구나 가까운 직장 동료 모두가 모두 같은 소득 계층에 속해 있다면, 자신의 부를 그들과만 비교하게 된다"고 말했다. "준거 집단 속에는 항상 더 많은 걸 갖고 있고, 더 많이 버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계속해서 더 많이 벌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죠."

그린버그 교수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자아를 짚었다. 그는 "미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여성보다는 남성이 수입을 자신의 가치와 중요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준거 집단이 고소득자들뿐만 아니라 저 있어 자신의 수입이 상대적으로 적다면, 준거 집단에 비해 자신이 덜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렇게 되면 개인의 자아는 동료들과 동등하거나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구를 불러일으키고, 이는 더 많은 수입에 대한 갈망으로 나타납니다."

샘도 동의했다. 그는 "고등학교 동창들, 일반적으로 나보다 월급이 적은 직장에 다니는 동창들과 어울릴 때는 확실히 내 월급이 자랑스럽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하지만 직장으로 복귀하거나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뉴욕대학교의 심리학과 교수, 테사 웨스트는 역사적으로 급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금기시되어 왔다는 점이 그린버그 교수가 말한 두 가지 요인을 악화시킨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많은 조직에서 여전히 급여를 비밀로 하지만, 점점 더 많은 노동자들이 보상에 대해 솔직하게 대화하는 것을 불편해하지 않는다고 했다. "급여 투명성에 대한 새로운 규범이 직장에 싹트고 있어요. 이는 분명 좋은 일이지만, 어떤 면에선 사람들이 자신을 남과 비교하는 것도 더 쉬워졌죠."

숫구치는 엔도르핀

맨해튼에서 일하는 브렌든 역시 평생 자신의 수입에 만족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한다. 은행에 다니는 그는 작년엔 약 15만 달러를 벌었



다. 32세인 브렌든은 "급여가 오르면 당연히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무리 올라도 '지금 버는 돈에 매우 만족하니 더 벌고 싶지 않다'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시점이 올 수 있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그는 급여가 오르면 어떤 것들이 가능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또 다른 급여 인상을 더욱 갈망하게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급여 인상이나 승진을 통해 엔도르핀이 약간, 때로는 크게 분출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뭐랄까, 그게 중독성이 있는 것 같아요."

샘도 마찬가지다. 어떤 해에는 인상을 받았는데 그 다음 해에는 받지 못하거나, 이번 해에는 월급이 올랐지만 그 다음 해에는 훨씬 적게 월급이 오르는 일은 매우 괴로운 일이라고 했다. "그런 상황에서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작년의 자신과도 비교하게 됩니다. 그 비교를 통해 자신이 퇴보했다는 생각

이 들면 상당히 불쾌해지죠."

그는 자신이 항상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이유는 월급에 적절한 금액을 성공의 직접적인 척도로 여기는 경향 때문인 것 같다고 했다. "저는 '쌓일수록 점점 더 성공해야 하는 것, 말하자면 성공을 축적해야 하는 것'이 커리어의 숙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성공을 수입의 규모와 동일시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테사 웨스트 교수는 항상 더 많은 소득을 갈망하는 욕구를 '라이프스타일 크리프(수입이 늘면, 그만큼 지출도 늘어난다는 용어)' 관점에서 풀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때문에 노동자들이 항상 급여에 대해 불안해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고 했다. 급여가 인상될 때마다 더 돈이 많이 드는 라이프스타일에 익숙해지고, 이로 인해 더 많은 수입을 욕망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 편집국장: 김재상 ■ LA지사장: 이성자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가톨릭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각종 행사 기념품 주문 제작
성화, 성구약자, 크리스탈강대상, 성가대·목사까운
(323) 737-7699
인터넷 쇼핑몰: www.lachristianbookcenter.com

교회인쇄물·헌금봉투·배너
Order Online 30% LOW PRICE
in2printing.com
인투인쇄 T. 718-425-8505

세계한인기독교언론협회 주최
제9회 신앙도서 독후감 모집
해외 한인 크리스천들이 양질의 신앙도서를 읽고 믿음과 삶, 그리고 사역이 보다 영적으로 성숙해 가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본 언론협회는 제9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많이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한국을 제외한 해외 거주 한인 평신도, 목회자, 선교사, 사모 등
2. 방법: 추천도서 6권중 한권을 선택하여 읽은 후 독후감을 제출하되 분량은 레터사이즈 3페이지(글자크기 10포인트, 줄간격 160%)이며 제출 마감은 2023년 10월 31일(오후 5시) (미 서부시간 기준)
3. 제출처: 이메일 wkcmmailbox@gmail.com으로 제출하되 응모자의 이름, 직분, 출석교회, 전화번호, 거주지 주소를 꼭 명기해 주십시오
4. 시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을 11월 15일경 발표합니다. 이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각각 US \$500, \$300, \$200씩의 부상이 전달되며 선정된 독후감은 본 협회 회원사들의 지면 및 인터넷 신문과 방송을 통해 발표됩니다. 시상식은 12월 초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립니다.
\* 참가자 전원에게는 참가상이 주어집니다
\* 이미 수상 경력이 있으신 분은 3년 동안 수상대상에서 제외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최: 세계한인기독교언론협회 (회장 이영선목사)
World Korean Christian Media Association
추천도서: THE PRODIGAL GOD, 새아 백백에게 배우라, 묵상과 기도, 믿음은 묻는 말에게, 사랑하느라 힘든 당신에게, 특별한 부르심 특별한 아픔
회원사: 남미복음신문(상파울, 브라질), 미주기독교신문(시애틀, 미국), 미주기독교방송(LA, 미국), 미주복음방송(애너하임, 미국), 미주크리스천신문(뉴욕, 미국), 아멘넷(뉴욕, 미국), 크리스찬 투데이(LA, 미국), 크리스찬 리뷰(시드니, 호주), 크리스찬 미디어(시애틀, 미국), 크리스찬 위클리(LA, 미국), 크리스찬 타임스(샌프란시스코, 미국), CHTV 크리스찬 헤럴드(LA, 미국), 크리스찬 저널(시카고, 미국)
후원: 기독교서적 323-737-7699 www.koramdeo.com, 복음사 562-865-4949
도서구입처: 두란노서원 213-382-5400 www.duranno.us, 도르가 서점 714-636-7430
말씀사 714-530-2211 www.lifebook.co.kr

자신의 설교한 은혜를 삶에 통해...

(1면에서 계속)

나는 프린스턴 신학대 강의를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켈러를 향한 사람들의 열광적인 환영을 이해한다. 1990년대 말 청소년 시기에 복음주의자로 회심한 후, 나의 신앙은 학교 교실이든 미국 하원 의회에서든 어떤 권력 아래서도 결코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이 나를 유명하게 하거나, 부자가 되게 하리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그가 어디로 나를 인도하시든지, 하나님께 신실함으로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랬을 뿐이다. 나는 적대적으로 반응하는 군중들에게조차도 나의 믿음에 대해 주저함 없이 나누고 싶었을 뿐이다.

그리고 2007년, 나는 미국의 가장 세속적인 환경 가운데서도 이를 가능하게 할 롤모델을 찾았다. 팀 켈러는 자신이 살아가는 시대를 대표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며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오직 우리의 성실함, 신실하신 구주에 대한 믿음에 집중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나눴다.

9/11의 비극이 새롭고 치명적인 문화 전쟁의 발발로 이어졌을 때, 켈러는 다른 길을 선보이며 제시했다. 크리스천티비 투데이 부편집으로 있던 2007년, 나는 켈러가 공동 창립한 복음연합(TGC)의 첫 공개 행사에 초대 보도한 바 있다. 켈러가 작성한 "TGC의 사역에 대한 신학 비전"을 먼저 읽어본 후 나는 쟁점 많은 21세기 젊은 크리스천들이 따를 수 있는 의제를 그가 제시했다고 생각했다.

켈러는 "독특한 방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을 겸손과 소망, 온유함과 담대함으로 충만케" 함으로써 그리스도 복음의 중심으로 나를 이끌었다. 성경적 복음은 수업을 통한 무조건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전통 보수 기독교와 달랐고, 우리가 봐온 더 이기적이고 개인주의 적인 전통 미국 문화를 바탕으로 둔 세속주의와도 확연히 구별됐다.

켈러는 "우리는 우리가 믿는 것보다 더 많은 죄와 결함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소망하는 것 이상으로 더 많은 사랑과 용납을 받았다."라고 고인인 된 친구 잭 밀러에게 가르침을 주었다.

적대감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설교자들 중에도 드물게 켈러는 사람들의 이성과 감성을 동시에 사로잡는 설교자였다. 그의 저작들은 비록 내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지만, 나를 사회 비평의 관점으로 이끌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켈러의 책은 어떤 점에서 은혜의 복음에 대해 일관된 강조점을 가진 매우 풍성한 단순함으로 나를 이끌었다.

이런 역동성은 1984년 레슬리 뉴비긴과 함께 했던 프린스턴 신학대의 워필드 강연에서도 볼 수 있다. 1986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요: 복음과 서구 문화(Foolishness to the Greeks: The Gospel and Western Culture)라는 책으로 출간되기도 한 이 강연에서 뉴비긴은 후기 기독교로 명명된 서구 문화와의 선교적 만남에 대해 논쟁했다. 나는 아브라함 카이퍼, 저명한 옛 프린스턴 신학자 BB 워필드와 선교학자 레슬리 뉴비긴의 유산을 동시에 엮을 수 있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켈러의 고유한 은사였다. 상투적이지 않게 말하자면, 그는 배움과 성장을 멈추지 않았다. 곧 출간될 나의 저서, 티모시 켈러: 그의 영성과 지성의 형성(Timothy Keller: His Spiritual and Intellectual Formation)에서 나는 그의 지적 및 영적 계발을 나무의 나이테(rings on a tree) 같다고 묘사했다.

켈러는 20세기 중반의 J.I. 페커, 마틴 로이드 존스, 존 스토틀 등 영국 복음주의자들로부터 배운 복음의 핵심을 그대로 간직했다. 그는 찰스 테일러, 헤르만 바빙크, N.T. 라이트, 알라스데어 매킨타이어와 같은 다양한 작가들의 사상을 포용함으로 성장하였다. 그리고 그는 어떤 면에서 카이퍼, 워필드, 뉴비긴 등 20세기 중반의 많은 신학자들과 위에 열거한 신학자들을 융합해냈다.

켈러가 우리에게 남긴 완성되지 못한 위대한 프로젝트이자 마지막 과제는, 그가 자란 1950년대의 펜실베이니아주 앨런타운의 중산층 상황과는 완전히 달랐던 21세기 서구의 선교 과정을 설계하는 것이었다. 켈러는 뉴욕에서의 자신의 성공적인 사역이 그의 뒤를 이을 세대에 많은 지침을 제공할 것이라 믿지도 않았다. 켈러는 후기 기독교 서구사회를 역사상 가장 저항적이고 도전적인 선교 개척지라고 정의한 뉴비긴의 견해를 따랐다.

현대 사회의 조건하에서는, 문화에 대한 전통적인 기독교의 반응들 중 그 어떤 것도 효과적인 선교 프로그램의 기초로 여겨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굳이 찾는다면, 이런 반응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경고하는 정도만이라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미시처럼 정치 권력 탈취를 추구하거나, 주류 기교인처럼 동화되어서는 안 된다.

켈러는 이러한 부류들을 그의 친구인 제임스 데이비스 헌터의 저작 세상을 바꾸기 위해(To Change the World): "방어적 반대"(극우 개신교), "관련성 있게"(주류 기독교), 그리고 "~으로부터의 정결"(아미시)과 결부시켰다. 헌터는 '신실하게 그 안에 거함'을 더 유력한

대안으로 제시했고, 켈러는 이를 센터처치(Center Church)에서 자 신만의 관점으로 채택했다.

2016년 많은 미국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 정치적 전략을 바꾸기 시작함에 따라 켈러에 대한 동료 복음주의자들의 비판과 감시가 증가했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그의 사역을 지켜본 사람이라면 켈러야말로 변하지 않은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켈러는 그런 반대를 자초하려고 한 적이 없다. 그와 함께 일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가 극단적으로 갈등을 싫어한다는 것을 증언할 수 있다. 나는 그로부터 단 한 번이라도 동료 신도들을 비판하는 언급을 들은 기억이 없다.

커져가는 적대감 속에서도 그가 보여준 흔들림 없는 태도는 수많은 영웅적 선배 지도자의 몰락에 환멸을 느낀 젊은 지도자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었다. 나 역시 그의 전기를 쓰기 시작하면서, 그에 관해 호의적이지 않은 비사들을 밝히는 것이 옳는지 고민했다. 대신, 어린 시절부터 그를 알고 지내던 가까운 친구들과 가족 수십 명과 대화 내용만이 나의 그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을 확증해 주었다.

그러나 켈러와 점점 더 가까워졌다는 것이 나로 하여금 그를 이상화하는 것으로 이끌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은 고린도후서 4장7절 말씀인 보배를 담은 질그릇 - 심히 큰 능력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이 실제 행하여지고 있음을 목격했을 따름이다.

지역 교회를 향한 사랑

근대 후기 서구 사회의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는 켈러의 사역 능력에 관해 이의를 제기한 이들도 있다. 그러나 만약 케이블 뉴스를 끄고 그들이 듣기만 한다면, 복음주의의 우선순위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어젠다를 그가 제시했음을 알 수 있다. 프린스턴 신학대 강의에서 켈러는 후기 기독교 서구사회에서 선교가 이뤄야 할 7 가지 단계를 제안했다.

첫 번째로, 그는 아우구스티누스의 하나님의 도성(City of God)의 맥락에서 대중적 변증법을 불러냈다. 이를 위해 독자들은 켈러의 주목받지 못한 고전 중 하나인 '답이 되는 기독교(Making Sense of God)'부터 시작할 수 있다. 둘째로, 그는 사회 문제에 대한 주요 접근과 영적 문제에 대한 복음주의적 접근 사이에서 제3의 대안을 제시했다. 칭의는 반드시 정의로 나아가야 한다. 셋째로, 그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속주의를 외부 구조가 아닌 세속주의 자체 틀 안에서 비판하도록 도전했다.

(15면으로 계속)

시론

물 밖의 물고기



은호근 목사 (평화드림포럼 대표)

「연목구어(緣木求魚)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나무에서 물고기를 찾는다.'는 뜻으로, 불가능한 일에 매달리는 어리석음을 경계하는 맹자의 격언이다. 그러나 나무에서 물고기를 찾을 수도 있다. 동남아에 서식하고 있는 '등목어'라는 물고기는 주로 혼탁한 수질과 수초가 많은 지역에 있는데 극도로 불리한 수질 조건에도 견딜 수 있다. '등목어'는 한문으로 오를 '등', 나무 '목'자로 말 그대로 나무에도 올라간다. 길이 25cm 남짓한 이 독특한 물고기는 아가미덮개에 뒤쪽을 향해 뻗은 가시가 있다. 양쪽에 하나씩 있는 그 아가미덮개를 뺀어 교대로 바닥을 짚고 튼튼한 꼬리로 힘차게 밀면서 나무 위를 기어 올라간다. 그래서 사람들은 '등목어'를 '클라이밍 퍼치'(Climbing perch)라고 부른다. 보통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고 그저 퍼덕거리다 죽기 마련이다. 그래서 '물 밖의 물고기'라는 말은 꼼짝 못 하는 상태를 묘사하는데 사용한다. 그러나 모든 물고기에게 '물 밖'이라는 환경이 저항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등목어'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내 삶에 갑자기 찾아올 때가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려울 때 가장 많이 성장한다.」(피온글) 필자는 20년 이민목회후 한국으로 들어온지 2년이 됐다. 올해 5월에 은퇴도 했다. 은퇴후 제 2의 인생으로 평소애 하고 싶었던 '평화운동'과 '인권운동'을 한국에서 시작했다. '평화운동'으로는 2년전 통일부 소속 사단법인 평화드림포럼(www.peacedream.org)을 조직하여 5개국어 평화교육교재 발간, 6.25 평화의 날 선포 기념사업, 평화드림 5만리(33명, 5개국 11개도시 평화순례), 평화드림 아카데미, 한반도 평화음악회 등등을 진행했다. '인권운동'으로는 그동안 준비했던 '미등목어동지원센터'를 지난 5월31일 창립총회를 했다. 한 나라가 국민소득 3만불을 넘어가면 자연히 이주민들이 유입된다고 한다. 렉서리한 것은 2만불이 넘으면 차박시대, 3만불이 넘으면 요트시대에 들어선다고도 한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의 관심은 렉서리가 아니라 항상 '사회적 약자와 소외자들'이다. 한국 사회에 '미등목 어동들'은 '인권의 사각지대'다. '미등목 어동'이란 누구를 말하는가 궁극 하실게다. 한국에서 이주민은 이미 300만명 전후가 됐고 그 가운데 3-40만명이 불법체류자다. 그리고 불법체류자들 가운데 태어난 아이들이 있다. 이런 아이들을 '미등목 어동'이라고 한다. 이들은 한국 땅에서 태어났지만 어디에도 출생신고를 못한다. 한국은 미국처럼 속주주의가 아니라 속인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아이들은 주민등록이 없이 그렇게 자라난다. 그래서 스스로를 '있지만 없는 아이들', '유령'이라고 부른다. 그들은 눈에 보이고 길어다니고 밥도 먹지만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없는 아이들이다. 주민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이다. 이 아이들은 스스로의 의지로 불법체류자가 된 것이 아니다. 부모들이 불법체류를 택했기 때문에 자기의지와는 관계없이 '불법체류 어동'(미등목 어동)이 된 것이다. 중학교 교육까지는 받을수 있고 고등학교는 학교장 재량이다. 의료 복지부분은 완전 사각지대다. 이들이 18세이상 이 되면 사회로 나온다. 그러나 이들이 할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군대도, 취직도, 대학진학도, 자격시험도 등등 이들에게는 전혀 해당이 안된다. 이유는 단 한가지, 주민등록번호(등록)가 없기 때문이다. 아무 리 의지가 굳고 성실히 노력해도 전혀 상관없다. 제가 만난 18세된 파키스탄 000은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가고 싶지도 않다고 한다. 겉은 파키스탄인데 파키스탄 말도 못한다. 한국말뿐이 못한다. 한류문화로 자라났기에 불법체류를 감수하고서라도 한국에서 사는 것이 좋다고 한다. 아들이 이리니 부모도 똑같다. 결국 18세가 되어 사회로 나온 '미등목 어동들'이 할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다. 범죄에 노출되기 쉽다. '보이스피싱, 마약, 갱, 환락가' 등등에 빠지기 쉽고 실제로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미등목 어동들'은 자리면서 '소외감, 차별, 억울함, 무기력' 등등의 체험들이 생성한다. 그 위에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상황이 그들은 점점 사회적 적격심이 증폭되어 사회의 잠재적 위험요소들이 될 수도 있다. 이들은 정말 누구의 도움없는 스스로 할 수 있는게 아무 것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주고자 발족한 것이 '미등목 어동지원센터'다. 이들을 사회적 음식에서 사회적 양지로 끌어내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해 주고 이들이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으로 한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는 것이 취지다. 이 일은 '언론-여론(국민정서)-법 제정'이 함께 움직여야 실패라가 풀린다. 그리고 한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저출산 부분'에도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서두에 말씀드린 '물 밖의 물고기'라는 말은 '물고기가 물 밖에서는 꼼짝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데 바로 '미등목 어동들'이 그렇다. 그러나 모든 물고기가 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등목어, 클라이밍 퍼치'를 통해서 알려 주었듯이, 자기 의지와는 관계없이 '미등목 어동'이 되어 버린 그들, 자기의지와 노력이 있 다해도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한 그들도 '등목어, 클라이밍 퍼치'가 될수 있도록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기도하고 격려하고 도와야 한다.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사회적 약자와 소외자들, 선한 사마리아인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미주크리스천신문 구독자들도 함께 기도를 부탁하는 의미로 오늘 이를 소개했다.

pastor.eun@gmail.com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http://www.midwest.edu)

**최고의 동문을 자랑하는 Midwest University School of Theology**  
 본교의 신학대학(원)은 37년 전통의 복음주의적인 초교파 교육기관으로 각 교단을 대표하는 목회자, 선교사, 교수, 기업인, 의사 등 동문들이 현재 전세계 70여개국에서 활발하게 사역하고 있음.

**목회자, 선교사, 기독교 지도자를 위한 리더십 전공 Ph.D. 학위**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국제항공대학(원)	경영대학(원)	국방대학원
교육대학(원)	리더십대학원	상담심리대학원
신학대학(원)	음악,문화예술대학원	

**학점,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미국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F-1 Visa (SEVIS-I-20) 또는 J-1 Visa (DS-2019)
2. 직장과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든지 Online 혹은 집중강의로 학점취득 가능
3. 영어, 한국어 언어에 구애없이 학점취득 가능
4. 타대학에서 받은 학점 최대한 인정하여 편입가능

자세한 사항은 web site 를 방문하거나 이메일 혹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학문의 : 전화 (636)327 - 4645, 이메일 [usa@midwest.edu](mailto:usa@midwest.edu)**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www.midwest.edu](http://www.midwest.edu)  
 Tel : (636)327 - 4645 / E-mail : [usa@midwest.edu](mailto:usa@midwest.edu)

### 목양실에서...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



## 하나가 될 수 없는 운명인가?

물과 기름은 섞일 수 없습니다. 물은 극성이라 물 분자끼리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지만, 기름은 비극성이어서 전기적으로 중립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물과 기름은 상호작용이 잘 안되고 서로 섞이지 않는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삶 속에도 서로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이 달라서 상호작용이 어렵고 어울리지 못하는 어려운 관계들이 있

습니다. 하나 되지 못하는 부부도 있고, 서로 앙숙인 직장인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신앙의 코드가 달라서 서로 불편한 관계를 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서로 같이 예배드리는 것도 같은 다락방에 속하는 것도 불편하고, 주일마다 얼굴 마주치기 싫어서, 계속 예배 시간을 바꿉니다. 아예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다민족의 나라 미국에서 이

민자로 살아가는 우리는 매일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가진 현지인들을 접하며 그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우리 가정에도 현지인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초등학교생일 때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이 되면 갑자기 언어와 문화가 다른 현지인들로 돌변합니다.

우선 얼굴을 마주하는 직접적인 대화가 줄어들고, 소통이 어렵습니다. 자녀와 한 식탁에서 함께 밥 먹기가 대통령과 식사하기보다 더 어렵습니다.

“밥 먹었니? 숙제했니? 차편이 필요하니?” 등등 기본적인 대화마저도 카톡이나 문자를 통한 간접적인 대화가 대부분입니다. 그마저도 자녀가 운전 면허를 따는 순간 사라집니다.

하지만 형제가 서로 연합하고 하모니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어떻게 물과 기름처럼 절대 섞일 수 없는 관계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 내가 상대방보다 잘나

지 않았음을 알아야 합니다. 왜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가 다 틀까요? 똑똑해서 다뚝니다. 내가 너무 똑똑해서 다뚝고, 내가 너무 똑똑한 척하기 때문에 다뚝고, 상대방이 나보다 똑똑하지 않음을 드러내려다가 다뚝니다. 이런 경우 진짜로 똑똑한 사람이 먼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면 다뚝이 멈추고 분쟁이 끝납니다.

둘째, 상대방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상대방도 나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귀하게 여기면, 서로 사랑으로 품습니다. 서로 양보할 수 있습니다. 다뚝이 멈춥니다.

셋째,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저 주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먼저 저 주는 사람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주 안에서 화평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못난 놈은 아내와 싸워서 이기는 남편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행복한 결혼생활의 비결도

먼저 저 주는 것입니다. 싸우더라도 남편이 먼저 저 주는 것이 행복한 결혼생활의 비결입니다.

넷째, 주안에서 예수님으로 뭉쳐야 합니다. 우리 가족이 서로 물과 기름처럼 도저히 섞일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다른 성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물과 기름과 같은 관계를 나아지게 노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우리 구세주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마요네즈의 주성분은 서로 섞이지 않는 기름과 식초(물)입니다. 그런데 서로 섞이지 않는 두 재료를 혼합시킬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달걀노른자를 유화제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달걀노른자에 들어있는 레시틴이 물과 기름을 함께 섞이게 하여 마요네즈를 부드럽고 안정적인 형태로 만들어 줍니다.

물과 기름같이 하나 되지 못

하는 성도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영적 유화제이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안에서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만이 교회와 가정이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만이 하나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최인이었던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고,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양과 같았던 우리가 주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시어머니와 며느리, 장인과 사위, 부모와 자녀, 직장 상사와 직원 등등...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형제가 서로 연합하고 하모니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주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뭉칩시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킵시다.

## 푸/른/초/장

정윤명 목사

(샌프란시스코 웰넷크릭 GIM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다(엡 1:13; 딤후2:15). 예수님이 진리이다(요 14:6, 1:14).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시다(요 14:17, 15:13; 요일 4:6).

진리가 인간에게 적용될 때 하나님(예수님)의 말씀에 의해 개인의 주관적 정신적 요소가 변화되어 점진적, 객관적,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진리 안에서 세상에 복음의 실천으로 영향을 끼친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리스도와 신비적 연합인 천국 시민이 된다. 그러나, 세상의 철학자들은 철학의 개념으로 진리를 표현한다. 플라톤은 보이는 것들 속에 진리가 없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이데아 속에 진리가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보이는 현상 속에는 진리가 없고 보이지 않는 진리 속에 진리가 있다.

칸트는 사람이 진리를 안 뒤에는 자기를 사랑할 줄 알고,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야 남을 사랑할 줄 알며, 남을 사랑할 줄 안 뒤에야 나라를 지킬 줄 안다.

에머슨은 진리는 모든 존재의 꼭대기 위에 있고 정의는 개별 사태에 대한 진리의 적용이다. 공산주의의 유토피아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들이 만들어낸 사상이 진리라고 주장한다.

진리가 자유와 의로운 정의로 총체적인 구원을 이루게 된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고 설명하십니다. 죄의 종이 되는 것은 궁극적인 속박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는 죄의 속박으로부터의 영적 자유, 즉 습관적인 불법의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자유 등등이 있게 하였고, 프랑스 혁명 구호도 자유, 평등, 박애등 이 모든 인간들이 말하는 자유는 인간이 살아가는 기간동안에 누리는 제한된 자유를 표현케 했다.

그러나, 성경에서 자유는 인

다.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이 예수님께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시험하였으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하셨느니라 고 말씀하십니다.

4. 진리복음의 자유를 지키자 (엡 6:10-20)

선교지와 세상의 각 처에서, 사탄의 시험과 공격을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대적해야 합니다. 진리로 자유케 된 자는 복음의 귀한 자유를 지켜야 합니다. 최근 한국과 홍콩

최근, 홍콩의 수많은 젊은 이들이 “더 이상 홍콩의 사회와 교회가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의 자유가 없다며, 진정한 자유가 없는 홍콩의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고, 그 땅을 떠났다. 그들은 미국과 캐나다, 유럽에 머물며 홍콩의 자유와 교회의 신앙 회복을 기도하며, 전 세계의 교회에 호소”하고 있다. 건강도 건강이 남아있을 때, 건강을 지키고 예방해야 한다. 신앙의 자유도 병이 발생하기 전에, 사탄의 전술에 미리 대비, 각성하고 대적하여 진리의 자유와 교회를 보호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적교

의로운 의의 속성에 순종하는 몸된 교회들이 그의 나라를 구하는 복음화에 힘쓰며, 악한 거짓 영에 대적하여 공의와 정의를 외치고, 이 땅에 적용하여 복음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당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격려하실 뿐만 아니라, 무력하고 버림받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학대받는 자들에게 정의를 내리실 것입니다. 고대 문화에서 고아, 즉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은 과부와 마찬가지로 매우 취약했습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 "억압당하는" 사람들은 권위, 정부 또는 그들에게 권력을 휘두르는 다른 사람들에게 의해 학대받는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잠 31:8-10; 신15:7-8) 오늘날 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복음의 자유를 파괴하려는 박해자들의 손에 불의와 압제를 당하고 있다.(사 61:1)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그의 진리로 자유를 선포하기 위해, 주님의 지상명령 (마 28:19-20)을 순종하며 이루기 위해 교회들은 함께 연대하여 협력해야 된다.

끝으로, 진리로 자유케 된 믿음의 백성들은 사회 각 층에서 이 땅의 하나님의 의와 공의로운 정의를 실천해야 한다. 예수님은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 사랑과 겸손, 섬김, 순종,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셨다.

아직도 세상의 죄의 종에 속박되어 신음하는 노예들은 지구촌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해 외친다. "우리들을 진리로 자유케해 주십시오." "우리의 목소리가 되어주세요." "우리의 옹호자가 되어주세요." "인신매매, 마약, 창조 질서에 역행하는 불투명한 성정체성, 거짓, 왜곡, 음모, 선동, 어두움의 악한 영에 맞서 싸우고, 죄의 종이된 자들을 복음의 진리로 자유토록 하기위해, 전 세계 교회는 일어서서, 복음 예수님의 "진리의 자유와 공의"를 지켜야 한다. 교회는 세상에 복음의 자유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마음으로 복음의 정의를 실천하고 이루도록 목소리가 되어야 하며, 옹호자가 되어야 한다. 그의 지체가 된 교회는 주님의 발자취의 모습을 따르며,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복음의 실천을 위한 섬김과 사랑과 겸손과 순종과 희생을 본받아 따를 때, 복음의 자유와 공의가 이루어지게 되리라 본다.

# 진리 안에서 복음 실천

### 요한복음 8:31-36

1.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 8:31-32)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 8:31-32).

진정한 제자도는 지적 동의 이상입니다. 그리스도를 “참으로” 따르는 사람들은 그들의 말씀을 “고착”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들의 가르침을 진리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르침에 순종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아들인 진리는 자유를 가져다줍니다.

예수님은 34절에서 자신의 말씀에 대해 가장 좋은 설명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는 비유를 계속합니다. “종은 집에서 영원히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니”(35절). 사람들은 아담과의 생물학적 관계로 (37절) 죄의 종이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라는 의미로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의 제자가 된다면 그들은 그들의 상태와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예수께서는 그들을 자유롭게 하실 것입니다. 신자들은 죄의 속박에서 풀려나 하나님의 가족이 될 것입니다.

2. 죄의 멍에로 부터 자유 (갈 5:1, 5:13)

그것은 율법과 죄에서의 해방(갈 5:1, 4:21~31 ; 롬7:3 ; 고전7:39), 세상의 죄, 죽음, 허무, 멸망에서의 자유(롬 6:18, 20, 22)가 있다. 루스벨트는 성경적인 가치관인 자유를 적용하여, ① 표현의 자유 ② 신앙의 자유 ③ 결핍의 자유 ④ 공포로부터 벗어날 자유. 러셀은 생명, 행복 추구의

간이 살아가는 기간은 물론, 죽음 이후의 영원까지 모든 부족한 요소가 다 해결되는 초월적, 영원한 자유이다. 그것은 진리를 믿고 순종할 때, 영생의 자유를 가르킨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요 8:36).

3. 진리에 거하고 따르는 것이다 (시 119:11; 엡 6:10-20)

영생의 자유를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엡 6:10-20; 요 8:31; 약 2:14-17)

시편 119편 11절에서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고 선포합니다. 시간을 내어 성경 구절을 구하고 암기하고 내면화하고,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와 능력과 의로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진리에 대항하는 사탄의 거짓영을 대적해야 된다.

사탄은 진리의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지 못하도록 파괴하는 전술에 대비해야 합

사회에 교회와 사회에 침투한 진리에 대항하는 미혹의 영들의 세력들을 교회는 각성하고 복음의 자유를 지켜야 한다.

지난달, 샌프란시스코 지역 홍콩교회에서 개최된 35개 민족교회 연합된 올네이션스 연합기도 컨퍼런스에서 자유가 억압당하고 있는 불안정된 홍콩사회와 교회가 쇠퇴되어 가는 상황을 전했다. 이어서 "지금도 한국사회에 여러 계층 즉 정치, 법조계, 정부기관, 노동조합, 군대, 언론, 문화계, 교회, 학술허, 신학교 등에 광범위하게 침투된 이들의 공산주의 세력들이 왜곡 선동하여 침투하는 내용들에 대하여 교회는 물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심히 우려스럽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북한 공산주의에 연합되면 한국의 교회는 패쇄되고, 목회자와 수백만의 교인들은 처형되고 탄압되어 진다"고 컨퍼런스에서 전했다. 이어 "왜곡으로 선동하는 세력을 한국의 교회는 분별하고 각성해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교회를 지켜야 한다"고 미국교회의 목사가 강조하였다.

제의 커다란 축복은 우리들의 생명을 살리고, 이 세상 무엇보다 더 귀한 것이고, 천국의 상속자로 유업을 받고 살기 때문이다. (엡 1:7-14)

우리는 주님의 지상명령 (마 28:19-20)을 순종하며 이루기 위해, 교회들은 함께 협력해야 된다.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이 실현되는 것을 파괴하기 위해 거짓 왜곡으로 미혹케하는 악한 영들의 전략도 함께 연대해 대적해야 한다.

5.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 6:33)

진리로 자유케 된 자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씀과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의를 구하라는 말씀도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방향을 향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의의 속성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정의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공의와 의를 행하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사탄까지 귀엽게 연출하고 사탄을 endorse 하는 Target과 WOKE 스토어들 대신, More Traditional Family-friendly 기준으로 순위를 매긴 TOP 10++ Stores 들에 가보세요!

지금 미 전역에서는, "사과 할 줄 모르는, 거만한 기회주의 기업" Target을 거부하고 보이콧 하는 구매자들이 매일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우 급진적인 LGBTQ+++ 운동을 뛰어넘어, 이제는 사탄의 이미지를 친근감있는 이미지로 만들어 어린아이들까지 TARGET(노리는) 삼은 그림들과 물건들을 판매하는 Target을 강력히 거부하는 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Target Boycott은 겨우 10일 만에 \$10 billion(100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Targe회사 대변인은 매장에서 일부 LGBTQ테마 상품을 철수한다고 발표했지만, 미 전역의 Target이 그럴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State와 도시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지난 2016년부터 지금까지 일어난 사건 때마다 Target이 기회적으로 취한 행동들과 결정들을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Target의 "기회주의" 전략을 알고 있는 미국 크리스천 시민들은 "NO MORE Target", "divorce with Target", "Shame on YOU, Target" 등의 코멘트들이 SNS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런 Target의 비도덕적이고 기독교 혐오적인 선전과 홍보, 브랜드들은 'American Family Association(AFA)'이 시작한 #BoycottTarget 정원에, 단 며칠 만에 1,090,935명이 넘는 서명이 모였습니다.

Target 보이콧에 동참을 원하시면 Tvnex.org로 가시면 됩니다.

매년 2조(\$2 trillion) 달러를 소비하는 41 million (4,100만)명의 Christian-minded 미국인들에게 대안책을 마련하고자 Faith Driven Consumer (FDC) 그룹은 #BoycottTarget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치면서, 아래와 같이 크리스천들이 갈 수 있는 곳도 나누었습니다.

아래는, 신앙평등지수(FaithEqualityIndex)를 기준으로 Target을 대체할 수 있는 10대 브랜드 목록을 선정하여 발표한 것을 순위대로 나눕니다. 100점에서부터 시작된 등수입니다.

- 1. Hobby Lobby: 57/100
2. Walmart: 51/100
3. Aldi: 47/100
4. Academy Sports: 46/100
5. Cabela's: 46/100



- 6. Toys"R"Us: 45/100
7. Bed, Bath, & Beyond: 44/100
8. Dick's Sporting Goods: 42/100
9. Publix: 40/100
10. Trader Joe's: 40/100

10개 외에, 저희가 강추하는 곳들은:
11. BassPro : Basspro는 조용히, 사회 국가적으로 기독교 가치관을 수호하기 위해 오랫동안 많은 후원금과 지지를 아끼지 않는 기업입니다.

- 12. Burlington (종합스토어)
13. Dollar Three (학용품 등등)
14. Salvation Army, Goodwill 같은 Thrifty stores 들안에서는 귀한 물건들도 싸게 구할 수 있습니다.
15. "America's Marketplace-PublicSqu" 를 강추합니다!

이런데 무엇 때문에 소비자들 더 화가 났을까요?

TARGET 스토어는 6월 LGBTQI Pride 달에 출시할 물건들을 팔기 위해 UK에 based 한 Abprallen을 고용하여, LGBTQI Collection을 파는것에 꿈이 부풀지만, 동성애와 사탄을 동시에 디자인하는 디자인이나 물건들로 인해 큰 풍랑을 맞게됩니다.

TARGET이 고용한 트랜스젠더 남성/사탄 이미지 물건을 만든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는 자기 트위터에 아래와 같이 적고 있습니다.

"Satan loves you and respects who you are... LGBTQIA+ people are so often referred to as being a product of Satan or going against God's will, so fine. We'll hang with Satan instead. ....Satan is hope, compassion, equality and love" 번역: 사탄은 당신을 사랑하고 존중한다. 동성애자들이 사탄으로부터 왔다고 하거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는 말들이 많은데, 뭐..

좋아. 우리 사탄과 함께 어울릴거니까. 사탄은 소망이고, 자비이며, 평등하고, 사랑이야"

Target이 Family-Store에서 정치적 PC Store로 변질된 간절한 배경:

Target은 전대통령 버락 후세인 오바마가 LGBT Pride Month(6월)를 만들었기 때부터, 이미 Family-Store에서 Politically Correct(PC) store로 가장 빨리 변질된 스토어입니다. 오바마때 시작된, All Gender Bathroom을 가장 먼저 시행한 family store가 Target이구요.

그로 인해, 2016년부터 저희 단체 TVNEXT와 AFA같은 미국 기독교 단체들은 Target, Starbucks등 보이콧을 시작했으며, 보이콧은 2016년도에도 Target에 큰 타격을 주었지만, Target에 다시 돌아간 소비자들이 많아지자, Target도 다시 WOKE 운동에 참여해 왔습니다.

버락 후세인 오바마가 만들어 놓은 LGBT Pride Month는 트럼프때는 정책적으로 조종했지만, 지금의 현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 더 넓게 미전역적으로 확산되면서, 이제는 수많은 기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LGBTQAI++ PRIDE MONTH" 물건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6월의 동성애 긍정의 달에 앞서서, "Transgender Visibility Month"를 지난 3월 31일에 선포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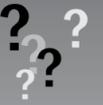
백악관에 올라온 대통령 성명(White House Proclamation) 끝부분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 You're each made in the image of God, and deserve love, dignity, and respect. You make America stronger, and we're with you.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으며 사랑과 존엄,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미국을 더 강하게 만들고 있으며,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라고.

캘리포니아의 제비 뉴섬 주지사의 신성모독적인 선포에 이어, 한 국가의 대통령이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를 이렇게 성경과 정 반대 되게 왜곡한 것은 신성모독 이라고 밖에 해석 할수 없기에, 국가의 리더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리더가 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셀비치사랑교회 / (310)749-0577
TLspc0316@gmail.com

Q: 목사님,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중국 북한 러시아 일본등 강대국 사이에서 가장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늘 조국의 안전과 통일을 위해 기도해 왔습니다. 한국은 국론이 분열되어 있고 조국의 통일과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토렌스의 정침사님이

A: 한국은 중국, 북한과 러시아등 공산주의 세력이 있고 일본과는 민족적으로 결끄러운 관계속에서 긴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북한이 그렇게 남한을 공산화하려 했으나 하나님께서 조국을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경제 10위안에 드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과거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의 지정학적 불리한 위치를 감안하여 6.25전쟁 후에도 한미동맹을 맺어 미군 6만명을 한반도에 주둔케 했습니다. 미군이 떠나면 결국은 주변의 공산주의 세력이 제 2의 6.25전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것을 감안하여 한미동맹을 굳건히 한 것은 참으로 선견지명을 가진 해안입니다.

"한국은 중국, 러시아, 일본에 둘러싸인 폭탄 같은 존재"

한국의 통일은 솔직히 언제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과 중국 등의 동남아 3국의 장래를 내다본 학자가 있습니다. 세계정세를 정확하게 예측한 바 있는 미국 코넬 대학의 정치학 박사인 조지 프리드먼(George Friedman)교수입니다. 그는 '100년 후(Next 100 Years)'란 책을 썼었고 최근에 '10년 후(The Next Decade)'란 제목의 후속작을 출간했습니다. 그 책의 예측을 소개합니다. 그의 책에서는 한국 경제계가 의존하는 '중국 대마론'에 일정한 경고를 던집니다. 중국은 수출 의존과 빈곤의 모순을 견디지 못하고 10년내에 위기를 겪으며, 반대로 일본은 아시아 최대 파워로 재부상한다고 예측했습니다. 그는 '미국은 세계 GDP의 25%를 차지하는데 중국, 일본, 독일을 합친 규모이다. 한국을 비롯한 수많은 나라가 자국 GDP의 5~10%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향후 500년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부상(rise)이 아닌 붕괴(collapse)를 생각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중국은 지금까지 잘해 왔지만 동시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데 핵심은 가난이다. 6억 명이 가구당 하루 3달러 미만의 벌이로 산다. 4억4000만 명은 6달러 미만으로 산다. 14억 명 중 10억 명이 아시아 프리카처럼 가난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내부 경제(internal economy)가 없는 나라다. 유럽과 미국이 제품을 사주지 않으면 존립하지 못한다. 그래서 中國은 외부 세계의 인질이나 마찬가지다"

프리드먼 교수는 일본의 무서운 단결력이 아시아 최강으로 복귀할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일본은 경제의 불복에서 中國과 동등하다. 국방력이 강하고 빈곤층이 적다. 일본은 외부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응집력이 강한 나라다. 일본의 근원적인 약점은 천연자원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보는 한국은 중국, 러시아, 일본에 둘러싸인 폭탄 같은 존재이다. 쇠퇴하는 중국이 5년 후에도 북한을 지지할 수 있을까? 그는 남북통일은 10-20년 안에 될 것으로 내다보면서 통일 후에 10년은 고통스럽겠지만 길게 보라. 북한의 땅과 자원 값싼 노동력에 남한의 기술, 자본 리더십이 합쳐지면 엄청난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장래성이 있고 장차 세계 5위안에 들 수 있는 것은 국민성이 부지런하고 교육열이 높으며 기술력이 좋고 700만 해외 네트워크가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1,000만 이상의 열정적인 기독교인과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적인 신앙이 한국을 이끌고 있으며 "1000만의 기독교인과 교회들이 한국의 큰 자산이다"고 봅니다.

Worldwide church directory including sections for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NJ)교회',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 and various regional churches like '뉴욕목양장로교회', '뉴욕부르클린제일교회', etc.

# 목회와 선교



여승훈 목사 (남가주보배로교회)

## “투박해 보이는 본질의 틀”

미국 어느 지역에 위치한 어느 교회가 홍보 차원에서 교회 홈페이지 교회 소개란에 “분위기 좋은 교회”라고 크게 써 놓은 글씨를 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약 2년 뒤에 교회가 내홍을 겪으면서 담임 목사는 떠나고 남아 있는 교인들안에

는 세 그룹으로 나뉘어져서 서로 다투는 소문이 지역 사회에 퍼지면서 사람들이 그 교회를 향해서 “분위기 가장 안 좋은 교회”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분위기 좋은 교회, 참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좋은

분위기가 좋은 교회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이해할 때 분위기를 먼저 찾으려면 분위기 때문에 실망하는 때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교회를 이해할 때 분위기를 먼저 찾으면 교회를 추구하는 방법들도 분위기에 맞는 방법

들을 찾게 됩니다. 분위기에 맞는 방법들을 추구하면 때가 되면 실망하고 후회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질 필요가 있습니다. 영의 눈이 어두우면 전 인격이 어두워져서 교회를 이해하고 교회가 추구해야 할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그 결과 모든 수고가 헛된 수고로 결말이 나게 됩니다.

오래전 30~40대 목회자들이 월요일마다 모여서 성경책 한편만 가지고 말씀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어느 은퇴하신 목사가 함께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민 목회를 성공적으로 잘 마친 분이었습니다. 그 목사가 참석하신 첫날 마치는 시간쯤에 일어 나서서 현역 목회를 하는 동안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충분히 선포해 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너무나 송구스럽고 후배 목회자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회개한다는 말씀과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옛 진리의 경전인 성경

으로 초점이 더욱 맞추어져 갑니다. 탁월한 기독교 인물들을 그들의 설교를 통하여 혹은 책을 통하여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깊이 그리고 진지하게 새겨 보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피전 목사의 설교와 책을 통해서 스피전 목사의 탁월함을 경험한 것에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스피전 목사의 탁월함을 통해서 결과물로 성경을 더욱 주목해야 하고 그리스도를 더욱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이 탁월한 신앙인들의 설교를 접하고 그들의 책을 접하는 목표이며 본질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가 귀한 이유는 그는 청교도들에게서 지대한 영향을 받았습시다. 그럼에도 로이드존스 목사는 그가 영향 받은 청교도들에게 머물지 않고 성경을 더욱 초점 하였고 그리스도를 더욱 초점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글은 언제나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게 합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가장 확실한 지점은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성경 말씀을 진지하게 대면할 때와 성경이 증거 하는 그리스도를 진지하게 대면할 때입니다. 성경과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그 다음으로 행동하는 일이 있습니다. 전도와 양육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힘과 사역자들과 성도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영적 전투력이 어디에서 나오니까? 전도와 양육에 매진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부어 주십니다. 혹시 전도와 양육이라는 원색적인 틀이 투박해 보여서 세련되어 보이고 멋져 보이는 틀을 찾아서 외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멋 나는 외출을 하며 살기에는 주어진 인생의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되치고 선포하며 나갑시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나의 삶의 주인!!

newsong6364@gmail.com

#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 '가뭄의 습격' ... 유럽·중남미·아프리카 등 폭타는 지구촌

지구촌 곳곳에서 최악의 가뭄에 따른 '물과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태평양과 카리브해를 연결하는 파나마 운하는 수위가 낮아지면서 선박 통행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우루과이는 수돗물에 바닷물을 섞어 공급하고 있으며 프랑스와 스페인 일부 지역은 1인당 물 사용량을 제한했다. 5일 외신에 따르면 파나마운하는 심각한 가뭄으로 수위가 낮아진 탓에 통과하는 선박의 중량을 제한하고 추가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수위가 낮아진 것은 너 달째 이어진 가뭄 때문이다. 운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알라후엘라 호수 인근의 지난 2~4월 강우량은 평년의 50% 수준이었다. 문제는 앞으로 수위가 더 낮아진다는 것이다. 운하 당국은 다음 달 31일 수위가 2016년 5월 기록한 역대 최저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선 운하의 가뭄이 물류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전 세계적인 물가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74년 만의 최악의 물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우루과이는 짠맛이 나는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인구 절반 이상의 수돗물을 공급하는 파소 세베리노 저수지 수위가 평소의 5% 수준으로 낮아지자 우루과이는 바닷물과 만나는 라플라타강 하구의 물을 혼합해 수돗물로 공급했다. 그 결과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의 나트륨과 염화이온이 포함된 것이다. 프랑스 남부 지역도 물과의 전쟁에 돌입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프랑스 남부 프로방스 지역의 칼리앙, 파야앙스 등 9개 마을에서는 개인당 물 사용량을 하루 150로 제한했다. 앞으로 5년간 새 주택과 수영장 건설 금지 조치도 내려졌다. 스페인은 영토의 27%가 가뭄 "비상" 또는 "경보" 상태다.

'아프리카의 빨'로 불리는 아프리카 동북부 지역은 40년 만에 최악의 가뭄으로 2000만명 넘는 사람들이 식량 위기에 처해 있다. 에티오피아, 케냐, 소말리아 등이 있는 이 지역에서는 2020년 10월 이후 약 3년 동안 강우량이 평년은 훨씬 밑돌고 있다. 가뭄의 원인은 지역별로 다르고 복잡하지만 지구온난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세계기상특성(WWA)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여름 유럽의 가뭄 현상은 지구온난화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

### 아프리카에서도 8~13세 여학생에 독가스 공격

아프가니스탄 북부의 초등학교에서 여학생

들을 대상으로 한 '독가스 공격'이 발생해 최소 60명이 병원에 입원했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아프간 현지 경찰 발표에 따르면 지난 3일과 4일 북부 사르이폴주 산차락 지역의 한 여학교에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들어가 교실에 독가스를 살포했다. 공격을 받은 8~13세 학생들은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사건의 배후와 공격에 사용된 화학물질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현재까지 체포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P통신은 "탈레반이 2021년 8월 정권을 장악하고 아프간 여성의 권리와 자유를 탄압하기 시작한 이후 이러한 종류의 공격이 발생한 것은 처음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전날 이 지역 교육부 책임자인 모하마드 라흐마니는 이틀에 걸쳐 발생한 독가스 공격으로 여학생 거의 80명이 중독됐다고 밝혔다. 라흐마니에 따르면 경찰 초기 수사 결과 원한을 품은 용의자가 제삼자에게 돈을 주고 공격을 가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탈레반은 재집권 당시 여성과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이웃 국가인 이란에서도 유사한 독가스 공격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여학생 최소 1만3000명이 다쳤다.

### 美·중 갈등에 기업들 탈중국... "美, 아시아에서 의존도 급감"

미국이 올해 아시아 시장에서 중국 의존도를 50% 미만으로 줄일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대중국 관계에서 디커플링(탈동조화)이 아닌 디리스킹(탈위험화)을 추구한다고 밝혔지만 기업들의 자발적 탈출 리시로 중국이 '세계의 공장' 지위를 위협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4일 글로벌 투자 컨설팅 기업 커니가 미국 무역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한 리쇼어링 인덱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이 아시아 국가(한국, 일본 제외)로부터 수입한 제조품 중 중국산은 50.7%로 나타났다. 10년 전인 2013년에 비해 70% 가까이 감소한 수치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한때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던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감소했지만 베트남 인도 대만 말레이시아에서의 비중은 점점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중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려는 미국 조치의 가장 큰 혜택은 베트남이 됐다. FT는 "베트남으로부터의 수입은 지난 5년 동안 두 배, 지난 10

년 동안 세 배 증가했다"고 언급했다.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패트리 반 덴 보쉬 글로벌 분석 책임자는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로부터의 수입에서 중국 비중이 올해 말에는 확실히 50%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컨테이너 물동량도 이런 움직임이 반영됐다. 캐나다 물류정보업체 데카르트에 따르면 미국 전체 컨테이너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2월 42.2%에서 올해 3월 31.6%로 감소했다. 반면 지난 4월 인도와 태국의 비중은 지난해 2월 대비 각각 4.1%, 3.8% 증가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CNN 인터뷰에서 "우리는 중국으로부터의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킹을 추구한다"며 "이는 군사적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첨단 기술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경제와 기술 등에서 경쟁하는 것과 그 경쟁이 같거나 대립으로 치닫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 사이에는 아무 모순이 없다"며 "언젠가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 국가주석과 다시 만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우크라이나, 동·남부 전선서 공세 펼쳐... 러 "성공적 격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에 점령된 남부와 동부에서 군사작전을 펼치며 예고했던 대반격이 사실상 시작됐음을 시사했다. 러시아는 남부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을 이틀째 격퇴했다고 밝혔지만 자국 내에서도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5일 CNN 등에 따르면 한나 말라르 우크라이나 국방차관은 이날 텔레그램에 올린 글에서 바흐무트 북쪽 마을 2곳으로 진격해 일부 고지를 장악했다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군은 방어 태세를 취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군의 공세는 바흐무트뿐 아니라 여러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은 우리 군대에 성공적인 날"이라고 자평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이날 밤 화상 연설에서 "군이 우리가 기다리던 소식을 전했다"며 "모든 전사에게 감사하다"고 격려했다. 반면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텔레그램 성명을 통해 점령 중인 도네츠크주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대규모 공격을 격퇴했다고 밝혔다고 관영 타스통신이 보도했다. 국방부는 우크라이나군 병력 총 손실이 1500명을 넘어섰다면 독일제 레오파르트 전차 8대를 포함한 탱크 28대와 장갑차 109대를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군은 지난 4일에도 같은 지역에서 상대의 대규모 군사작전을 저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러시아 민간 용병기업 바그너그룹의 주장에 따르면 프리고진은 이를 "공상화소설"이라며 일축했다. 그는 특히 '1500명 손실' 주장에 대해 "그 정도 규모의 사람을 죽이려면 매일 150km씩 획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전선 곳곳에서 나타난 산발적 공세를 대반격의 징후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와와의 회담에서 우크라이나가 반격에 성공할 것이라는 질문을 받고 답변 대신 한 손을 들

어 손가락 두 개를 교차하는 모양을 만들었다. '행운을 빈다'는 의미의 제스처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관리들이 군 위성으로 우크라이나군 배치 지역에서 증가한 군사 활동을 수집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반격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 민주화 이후 최대 시위... 50만명 거리 나선 폴란드

폴란드에서 1989년 민주화 이후 34년만에 50만명이 참가한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다. 집권 법과 정의당(PiS)의 극우 포퓰리즘에 항의하며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요구하는 시위였다. 뉴욕타임스(NYT)는 4일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서 자유선거 34주년 기념 집회에서 엄청난 폴란드 시민들이 참가해 정부에 항의했다고 보도했다. 집회를 주도한 도날트 투스크 전 총리는 언론과의 접촉에서 "숫자인 50만명이 모였다"면서 "공산주의 시대가 끝난 뒤 최대 규모의 정치 집회였다"고 밝혔다. 이번 시위에는 89년 자유노조 운동을 주도하며 옛 소련 체제하의 동구권 국가로는 처음으로 자유선거를 이뤘던 레흐 바웬사 전 대통령도 참가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집회는 89년 6월 부분적이거나 처음으로 치러진 자유 선거를 기념하기 위해 개최됐다. 당시 예상을 뛰어넘어 자유노조가 압승을 거두며 전후 동구권에서 처음으로 비공산 정권이 탄생했다. 제1야당인 시민강령당(PO) 대표인 투스크 전 총리가 주최한 시위에는 다른 야당들도 대부분 동참했다. 또 성전환자 권리 활동가와 다양한 인권단체, 노조 대표까지 폴란드의 민주화 세력이 총망라된 것으로 전해졌다. 시위에 참가한 시민들은 폴란드와 유럽연합(EU) 국기를 들고 나왔고, 집회는 축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투스크 전 총리는 연설에서 "자유노조의 슬로건은 '우리는 결코 분열하거나 깨지지 않는다'는 것이었다"면서 "민주주의의 적들의 거대한 야망은 과거나 지금이나 아무런 쓸모가 없었으며, 되레 우리의 힘을 강화시켰을 뿐"이라고 웅변했다. 이어 "우리는 강하고, 그때처럼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해 싸울 준비가 돼 있음을 폴란드, 유럽, 세계가 보고 있다"고 말했다.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총리로 재임한 그는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으로 5년 임기를 마친 뒤 국내정치로 복귀했다. NYT는 "투스크 총리의 연설은 최근 PiS가 '러시아 영향 공작자 퇴출' 법안을 내놓자 일제 반발한 야당과 민주화 세력의 견해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법안은 2007년 이후 러시아가 끼친 영향력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위원회를 만들어 러시아의 영향력 아래 활동한 사실이 확인된 공직자에 대해 최대 10년간 공적 자금 및 보안인과 관련 업무 종사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폴란드 전역에 반(反) 러시아 정서가 팽배해지자, 언제 이 두다 대통령이 오는 10월 총선에서 투스크 전 총리를 배제하려는 의도로 법안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이다.

IX 교회론 (1)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하여 살아간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5장에서는 교회를 이렇게 정의한다. "1. 보편적인 무형교회는 택하심을 입은 자들의 총수로 구성되는데, 이들은 교회의 머리인 그리스도 아래 모여왔고, 모여있으며, 장차 하나로 모일 것이다. 이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총만케 하시는 그분의 신부요, 몸이요, 총대이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택하시어 불러 내신 성도들의 모임 (공동체)이다 (롬 11:1-5; 벰전 2:9).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의 모임은 신약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 신약의 교회의 탄생은 구약의 계사가 성취되어진 사건이다. 구약은 모형, 그림자, 예언으로 교회의 모습이 계시되었고, 신약에서는 예언의 성취와 모형과 그림자의 실체로 나타났다.

교회는 하나의 교회이지만 그러나 두가지 측면이 있다.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이다 (church as invisible and visible). 이것은 두가지 다른 교회가 아니라 동일한 교회의 양면이다.

보이는 교회 (visible church)는 마치 영혼에 있어서 몸과 같다. 보이는 교회는 신앙고백, 조직, 행정, 복음전파 사역 등을 통하여 외적으로 나타난다.

보이지 않는 교회 (invisible church)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과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것이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의미에서 보이지 아니한다는 측면의 교회를 말한다.

우리는 교회를 바라볼 때 너무 보이는 면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보이는 면을 무시하지도 말아야 한다. 보이지 아니하는 참된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의 진리에 합당하게 존재하면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회는 유기체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교회는 기계와 혹은 단순한 조직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연결되어진 유기적으로 조직되어 있다.

A. 교회의 본질

1. 교회의 단일성 (unity): 교회가 하나라는 것은 (단일성)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서 (엡 1:22; 5:23), 같은 성령으로 교통하며 (롬 12:5; 고전 6:17; 12:13; 엡 4:4), 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이다. 교회의 단일성은 모든 나라, 민족, 언어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참된 교회의 모습을 지니면 동일한 교회이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은 교황을 중심

으로 조직된 가시적인 교회가 오직 유일한 교회라고 주장하며, 교회의 단일성은 곧 로마 가톨릭의 외적으로 조직된 교회를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이다. 교회의 단일성은 영적인 단일성이다.

2. 교회의 성결성 (Holiness): 교회의 성결성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공동체는 거룩하다.

(에베소서 5:27)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거룩함을 받은 성도들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는 교리적으로 (신앙고백) 거룩해야하고, 성도들의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나타나야 한다.

로마 가톨릭은 자기들의 교회에서 예배, 권위를 비롯한 여러가지 의식

대 케이크 교회는 교직자를 세워 성례를 시행하고 교회의 행정을 담당하게 한다.

2. 교회 정치를 국가에 위임하는 제도: 에라스티안 (Erastian System) 제도이다. 주로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교회 제도이다. 이 제도에 의하면 교회는 오직 복음을 전하고, 정치는 국가에 위임한다. 이들은 교회는 신성한 기관이기 때문에 교회 정치 행위를 직접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세속적인 기관이 국가가 신령한 기관인 교회의 차리를 바로 할 수 없다. 현재 이 제도는 많이 수정되었다.

3. 감독정치: 이 제도는 교회의 머리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정치를 사도들의 계승자인 감독들에게 위임하였다고 주장한다. 이들에 의하면 회중은 교회 정치에 참여할 수 없다. 현재는 영국 성공회에서 채택한 제도이다.

4. 교황정치: 로마 가톨릭교회의 정치제도이다. 이들은 교황이 베드로의 직접적인 계승자라고 한다.

원들이 가지는 정치권을 가지지 못한다.

6. 장로교 혹은 개혁파 교회 정치 (the Presbyterian Church and Reformed Church)

1) 개혁파 교회 정치의 원리는 다음과 같다.

- a)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며, 교회 정치의 원천은 그리스도이시다. 개혁파 교회는 어떤 특정한 인간이나 (교황) 혹은 인간의 직책 (감독)이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고, 오직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강조한다.
b)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을 수단으로 권위를 행사하신다.
c) 교회의 왕되신 그리스도는 교회에 권세를 주셨다.

2) 개혁교회의 사역의 원리

- a) 사역적 혹은 섬기는 사역이다 (ministerial)
b)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교회를 봉사하고 성도들을 섬겨야 한다.

4) 장로교 (개혁파) 교회의 3 가지 처리회

a) 당회 (Session or Consistory): 성경적인 근거는 행 20:17; 살전 5:12-13; 딤펢전 5:17; 히 13:17.

장로교 혹은 개혁파 교회의 지교회 정치는 대의정치 (representative Character)의 특징을 갖는다. 지교회 회원들은 자기들의 대표로서 처리장로들을 (ruling elders) 선택한다. 교인들의 대표인 장로들과 노회에서 파송된 목사 함께 당회를 구성하여 교회를 처리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장로들이 교인들에 의해서 선택되지만, 그러나 그 권위와 처리의 방법은 교인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다. 그들은 교회의 머리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의하여 처리를 해야하며,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

b) 노회 (Presbytery or Classis): 성경적인 근거는 행 15:4-29; 21:17-26, 딤펢전 4:4.

많은 지교회들이 각처에 흩어져 있었는데 (행 9:31; 19:17-20; 20:28; 고전 16:19), 이 교회들이 예루살렘 노회를 통하여 문제 해결의 도움을 받았다 (행 15장). 딤펢전 4:14의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말의 헬라어인 ἐπιθέσεως τῶν χειρῶν τοῦ πρεσβυτερίου (laying on of the hands of the elderhood) "장로의 단체 (회)"는 장로들의 모임, 즉 노회를 의미한다.

보우만 (Bouwman)은 노회의 필요성은 4 가지를 말한다: 회의 통일성을 위하여; 많은 교회들이 연합하여 교회의 순결성을 지키기 위하여; 교권주의 자들의 횡포를 막고 회중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가 유지되고 권징되기 위하여.

노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처리해야 한다.

c) 총회 (General Assembly): 총회의 존재는 성경적인 근거를 지닌다.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된 예루살렘 공의회는 "사도와 장로들"이 모여서 난제를 의논하였다 (행 15:6). 사도시대에 총회의 성격으로, 전 교회를 대표하여 사역을 하였다. (1) 이방교회로부터 대표자들이 파송되었다 (15:2);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함께 참여 했다 (15:6); 이 회의의 (final) 처리회가 되었다. (2) 이 회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했고 (16-18 절); 지 교회들을 위하여 교리를 결정하였고 (23-29절); 이 모든 과정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고 (28절), 그 결과는 권위가 있었다. 이 결정은 당시의 교회들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KHL0206@gmail.com



평신도를 위한 조직신학(23)



이길호 목사 (뉴욕 성실장로교회 원로)

의 성결성을 주장한다. 그러나 개혁파 교회는 외적 의식의 거룩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인한 내적인 거룩을 의미한다.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교회의 거룩함이다.

3. 교회의 보편성 (Church as universal): 보편성이라는 말은 어느 시대나, 어떤 민족이나, 어느 곳이나, 참된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오직 자기 교회만 보편적 교회라 주장한다. 그러나 개혁파 교회는 어느 특정 교파의 조직체인 외적 교회가 아니라,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내적 교회를 말한다.

B. 교회의 정치

1. 무정치주의: 케이크 교회는 교회가 정치를 시행함은 교회의 신령한 생활을 해롭게 하며, 죄악이라고 한다. 그러나 성경은 교회정치가 시행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마 18:15-17). 교회정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합당하게 시행되면 해로운 것이 아니라,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이다. 현

그러나 사도적은 단회적이다. 사도는 교회를 세운 창설자이다. 사도는 반복적이 아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마 16:13-19을 잘못 해석하였다. 마 16:18,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언급된 "베드로" (반석)는 남성명사이다. 이것은 베드로라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러나 다음에 나오는 "이 반석"이라는 말은 여성명사이므로 그것은 베드로 라는 사람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베드로의 신앙고백,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베드로의 신앙고백이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인간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위에 세우시겠다는 말씀이다.

5. 회중과 교회 (The Congregational System): 이 교회를 독립파의 제도라고도 불린다. 이 제도는 각 교회는 상호 독립된 완전한 교회이다. 이 교회의 정치권은 오직 그 교회의 회원들에게 있다. 교회의 직원들은 단순히 사역자들이며, 교회의 회

3) 교회 직원의 종류

a) 교회 창설직원: 사도와 선지자 (신약)는 교회의 창설자이다 (엡 2:20). 그리고 사도시대에 "전도자" Evangelist (εὐαγγελιστής)는 행 21:8; 딤후 4:5에 나온다. 칼빈은 이 "전도자"는 사도 시대의 특별한 직원이었고, 사도와 같은 일을 하였다가 나중에는 없어졌다고 한다 (기독교 개요 4.3.4). 보우만 (H. Bouwman)은 전도자는 "정규적인 직원이 아니었고 은사에 의하여 사도들을 돕는 사역을 하였다가 나중에는 없어진 직분이다" 했다. 오늘날 교회의 전도사 혹은 부흥사는 성경에 나오는 전도자와는 다르다.

b) 교회의 향촌직: 교회의 향촌직은 장로(감독) (행20:17, 28; 딤펢전 3:1-7)와 집사이다.

장로는 두 반이 있으니, 설교와 처리를 겸한 이를 목사라 부르고, 처리만 하는 이를 장로라 부르며 이는 교인의 대표자이다.

집사는 목사와 장로와 구별된 직분이며, 말은 사역이 독특하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해 집사의 직분을 세웠다 (행 6:3).

Worldwide Church Directory (Worldwide Church Directory) listing various churches and their pastors. Includes sections for 감사한인교회, 나성순복음교회, 남가주든한교회, 남가주사랑의교회, 대흥장로교회, 디아스포라선교회, 미주양곡교회, 미주평안교회, 복음장로교회, 베델한인교회, 세계사망교회, 세계선교회, 실비치 사랑교회, 열매교회, 엘피스지역원, 은혜한인교회, 주님세운교회, 좋은마음교회, 코너스톤 교회, 토렌스조은교회, 히슬사망교회, and 미주크리스천신문 후원교회. Each entry includes church name, pastor name, and contact information.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78)



리처드 백스터(Richard Baxter)의 [회심, A Call to the Unconverted]

이윤석 목사 (NY 부르크클린제일교회)



9장 회심하지 않는 자의 죽음은 자신의 책임(2)

교리 7: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음은 사람들이 멸망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멸망당하는 사람들 자신의 뜻이며, 더구나 그들의 고의적 뜻이다. 그들이 죽는 것은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1) 손을 펴도 돌아보는 자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신다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의 은혜의 왕국에서 함께 잔치에 참여하도록 여러분을 초대하셨다. 그러나 여러분은 발과 소와 장가를 핑계대고 초대에 응하지 않았다. 여러분은 가고 싶지 않을 때 갈 수 없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켰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절대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셨다. 그렇다면 이것은 지금 누구의 책임인가? 여러분의 뜻이 아닌가? 여러분의 멸망에 대한 가장 중요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여러분의 책임이 아닌가? 여러분은 멸망당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런 전체적인 상황이 잠언에 잘 나타나있다(잠3, 잠언 1:20-33). 악인의 멸망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지 않으시려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배우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악인의 멸망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지 않으시려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도 회개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의 멸망은 그들의 고집 때문이다.

\* 교리 7의 적용

1. 사람의 멸망 원인이 하나님께 있지 않음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소리치며 말한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무런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심판은 가혹하다고 말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회심하지 않고, 성화되지 않은 모든 사람이 멸망하도록 하는 것도 당치도 않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들은 잠깐 동안 죄지는 것으로 영원토록 고통받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벌이라고 생각한다. 이러저러할 사이 그들은 자신들을 멸망시키는 일에 바쁘며, 심지어 자기 영혼의 송뿔을 끊으면서도 자기들의 손을 내밀어 하나님을 불참이라는 권고를 듣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은 만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다면 하나님께서 잔인한 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들이 자기 자신에게 잔인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 앞에 지옥이 있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그들은 지옥불로 달려갈 것이다. 권위나 협박이나 다른 어떤 것도 그들을 막지 못할 것이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그들에게 그 자신의 영혼을 불쌍히 여길 것과 은혜가 가까이 있을 때 자신을 파멸시키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다. 그래도 그들은 우리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들에게 죄를 버리고 지체 없이 그리스도께로 오며 그들에게 대한 사랑을 보여 주어야 한다고 권면하지만 그들은 아무 것도 들으려 하지 않는다. 여러분은 반드시 회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것을 듣고 있다. 그러나 여러분은 회개하지 않는다. 여러분은 만일 계속해서 죄를 버리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의 형벌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머물러 있다는 것을 들으면서도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다.

1) 죄짐을 등에 지고도 천국에 가기를 바라는가?

거룩함이 없이는 행복에 이르는 길이 없다는 것을 듣지만 여러분은 거룩하게 되려고 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이상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 여러분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그 어떤 자비가 필요한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것을 주었지만 여러분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여러분은 죄와 구렁텅이에 빠져 있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건지시려고 손을 내밀고 있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움을 거절하고 있다. 여러분은 정욕과 식욕과 운동 경기와 술취함을 사랑하고 있다. 왜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는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죄를 버리든지, 버리지 않든지 간에 천국으로 데리고 가도록 바라고 있는가? 이것은 불가능하다. 여러분은 차라리 하나님께서 태양을 어둡고 바구도록 기대하는 편이 더 나은 것이다. 거룩해지지 않고 육신적인 마음이 천국에 있다고요? 그것은 불가능하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은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계 21:2).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비를 받아들이도록 부르고 계시지만, 여러분은 전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 만일 곰이 여러분의 뒤에 있다면 여러분은 안색이 바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저주가 여러분의 뒤에 있고, 사탄과 지옥이 여러분의 뒤에 있다고 말해도 여러분은 아무런 동요도 없이 '왜 이렇게 야단법석입니까?'하고 짜증을 낸다. 불멸의 영혼이 여러분에게는 더 이상 소용이 없는가? 누가 끝없는 지옥불 속에서 살 수 있겠는가? 그런데도 그들은 자신에게 무자비하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잔인하고 무정

하게 자신을 멸망시키면서도 이 뻔뻔하고 불쌍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자기들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지옥으로 가려고 하며 그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2) 오래 기다리신 하나님께 무자비하다고 대들 것인가?

만일 우리가 그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위해, 그들을 위해 죽으실 그리스도를 위해, 그들 자신의 불쌍한 영혼을 위해 그들 자신을 불쌍히 여기며 더 이상 지옥으로 가는 길을 계속 가지 말고, 팔을 벌리고 계신 그리스도에게로 가며, 문이 열려 있는 동안 생명을 얻으며, 은혜 받은 만한 때에 은혜를 받으라고 간청해도, 그들은 설득당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이 벗었을 때 어떤 사람이 입을 옷을 주지 않고, 여러분이 배고플 때 그가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를 두고 무자비하다고 말할 것이다. 만일 그가 여러분을 감옥에 가두거나, 때리거나 고문하면 여러분은 그를 가리켜 무자비하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은 자신에 대해서는 수천 배나 더 무자비하며 심지어 몸과 영혼을 모두 지옥에 던져 넣으면서도 여러분 자신의 무자비함에 대해서는 전혀 불평하지 않는다. 만일 하나님께서 결국 여러분을 심판하신다면, 계속해서 자비를 가지고 기다려 오신 하나님을 여러분은 무자비한 분으로 여길 것이다.

younsuklee@hotmail.com

사·모·칼·럼



허양희 사모 (텍사스 오스틴 주님의교회)

정체성

미국에 이민 온 지 만 이십질 년이 되었다. 남편 학업을 위해 이민 가방 몇 개 들고 어린 아기 두 명과 함께 캘리포니아에 도착한 우리는 마련해 둔 보증금자리로 가기 위해 낯선 이국적인 풍경에 어리둥절해하며 고속도로를 달리던 기억이 새롭다. 그때만 해도 공부를 마치면 한국으로 귀국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시작한 이민 생활, 이민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가 될 줄은 전혀 예상도 못한 채 손 화살 마냥 이십질 년의 세월이 흘러버렸다.

검은 머리카락이 수북했던 남편은 항상 술가위로 머리카락을 정리해 해야 했지만 지금은 머리카락이 현저히 줄어든 흰 머리가 득한 채 지난 세월의 흔적을 이고 있다. 사업을 하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할 때만 해도 배우자를 위한 기도에 백 퍼센트 응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환호를 질렀지만, 결혼 이 년차에 하나님은 남편을 전적인 사역자로 부르시며 하나님의 온전한 뜻 안에 순종하기를 원하셨다. 하나님은 남편이 공부해야 할 신학교를 예비하시고 모든 유학 절차를 기적적으로 진행해 가셨다.

미국에 도착하여 주일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갔는데 누군가가 "사모님" 하며 불렀다. 그 호칭은 얼마나 생경하던지 팔에 소름이 쭉 돋았다. 그렇게도 싫어했던 목사의 아내가 되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혼 전 아무리 멋지고 훌륭해 보여도 신학생이라고 하면 아연실색하며 손사래를 치던 나였다. 그렇게 목회자 아내의 길로 접어들어 주 사모의 정체성에 대해 심각한 고민이 시작되었다. 고등학교 입학할 때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믿음이 시대인 나로서는 사모의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아 사역을 잘하고 계시는 선배 사모님들을 만나면 '사모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라는 질문을 던졌고 그들의 말을 경청하며 사모의 정체성을 탐색해 갔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질문을 드리며 생각을 정리해 갔다.

몇 개월의 시간이 흐른 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은 나는 나로서 의미가 있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라는 존재 정체성을 인식하게 하셨다. 나는 다른 어떤 이처럼 될 필요가 없고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고유하고 독특한 사명에 충실한 그 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다. 사모로서의 정체성은 역할 정체성으로 이는 존재 정체성이 먼저 확립된 후 그 바탕 위에 세워져야 한다. 결국 사모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라는 존재 정체성을 하나님 안에서 먼저 확립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지하게 했다.

탈북 신학교 교수였던 닐 앤더슨은 그의 명저인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에서 "자기 가치에 대한 평가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아는 데서 시작된다. 곧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 때인 것이다"라고 말한다.

모든 그리스도인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자신의 신분에 대한 인식, 곧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그 바탕이 확고할 때만이 거둔 성도로서 영적 성숙의 삶을 힘 있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yanghur@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 기타지역 교회

<p><b>갈보리장로교회</b></p> <p>담임목사: 조용철</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세례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p> <p>Tel: (850)423-9700,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p>	<p><b>다민족 교회</b></p> <p>담임목사: 홍귀표</p> <p>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영양예배: 오전 10: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성경공부: 오후 8:00 다민족찬양: 매주(목)오후 4:00-7:00</p> <p>Tel: (703)821-1112, estross@yahoo.com 6050 W. TOLUH Ave, Chicago, IL 60646</p>	<p><b>몽고메리교회</b></p> <p>담임목사: 최해근</p> <p>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영양예배: 오전 10: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p> <p>Tel: (610)222-0691, 267-471-7777, Fax: (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p>	<p><b>벅스카운티장로교회</b></p> <p>담임목사: 김인환</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어 예 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p> <p>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3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67</p>	<p><b>벨렐교회</b></p> <p>담임목사: 백신중</p> <p>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장): 오후 1:45 다민족: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410)461-1235, Fax: (410)461-1236 3165 St. Johns Lane, Elkton City, MD 21042</p>	<p><b>보스턴장로교회</b></p> <p>담임목사: 장성철</p> <p>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전 11:30 토요세례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유치, 청년, 중고등부* (주일)오전 11:00, (금) 오후 8:00</p> <p>Tel: (508)435-4579, Fax: (508)435-4333 1000 E. Vealeans Memorial Blvd, Kittery, MA 01761</p>
<p><b>새생명안인교회</b></p> <p>담임목사: 정성환</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전 11:00 E M 예 배: 오후 7:00(목) 세 렵 예 배: 오전 6:00(화/목/토) 구 역 예 배: 각 구역별로 한국 학 교: 오전 10:20(주일)</p> <p>Tel: (850)423-9700, Fax: (702)257-9191 5502 Old Bethel Rd, Crestview, FL 32536</p>	<p><b>센터빌한인장로교회(PCA)</b></p> <p>담임목사: 차용호</p> <p>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전 11:30 초, 중, 고 대학부 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세례예배: 매일 오전 6:00</p> <p>Tel: (703)821-9235, Fax: (703)821-9236 25454 Gum Spring Road, Chantilly, VA 20152</p>	<p><b>일칸사 제자들교회</b></p> <p>담임목사: 전남수</p> <p>주일 1부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세례예배: 오전 6:00(월-토)</p> <p>Tel: (501)820-9049, Fax: (501)820-9048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p>	<p><b>앵커리지열린교회</b></p> <p>담임목사: 유재일</p> <p>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p> <p>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p>	<p><b>영생장로교회</b></p> <p>담임목사: 백은영</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세례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p>	<p><b>킬린은누리교회</b></p> <p>담임목사: 김성한</p> <p>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찬양예배: 오후 3:00 세례예배: 오전 5:30(화·금)</p> <p>Tel: (254)535-1842(H), (254)501-4833(C) 1000 E. Vealeans Memorial Blvd, Kittery, MA 01761</p>
<p><b>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b></p> <p>담임목사: 한세영</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세례예배: 오전 5:30(월-토)</p> <p>Tel: (703)841-4447, Fax: (703)841-4448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p>	<p><b>타코마 한인장로교회</b></p> <p>담임목사: 박정호</p> <p>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주일 2부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3부예배: 오전 11시 주일영양예배: 오후 1시 수요예배: 오후 7시 세례기도회: 오전 5시 30분 (화-토)</p> <p>Tel: (253)536-6675, Fax: (253)536-6676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p>	<p><b>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09, lachpress@gmail.com</li> <li>■ N.Y.: Tel. (718)886-4400, Fax: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li> </ul>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b>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09, lachpress@gmail.com</li> <li>■ N.Y.: Tel. (718)886-4400, Fax: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li> </ul>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b>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09, lachpress@gmail.com</li> <li>■ N.Y.: Tel. (718)886-4400, Fax: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li> </ul>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b>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09, lachpress@gmail.com</li> <li>■ N.Y.: Tel. (718)886-4400, Fax: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li> </ul>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 목회서신



지용덕 목사 (미주양곡교회)

## “이삭을 줍는 여인의 행복”

저희 교회는 매일 그 달의 표어를 정하여 사역에 집중을 합니다.

6월에는 “복된 이삭줍기 의 달!”이란 표어를 걸고 이삭 줍기 전도 운동을 시작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부흥을 심각히 고민하여 기도 하던 중에

마음에 들려 온 소리 때문입니다.

농부는 곡식 단에 관심을 가지고 버려진 이삭에 무심하기 쉬운 것처럼 영적인 농부인 목사인 저는 온전한 곡식 단과 같은 교인에 관심을 가지면서 여기 저기 널려 버려지고 방치

된 곡식 이삭과 같은 영혼에 대하여 무관심함을 각성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밭에 버려진 이삭과 같은 영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언뜻 보면 잘 보이지 않아도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 저기 영

혼의 이삭들이 널려 있는 것을 발견 하게 됩니다. 방치된 곡식 이삭을 계속 방치하면 결국 썩어 못 쓰게 되거나 공중의 새들의 먹이나 짐승들의 먹이감으로 훼손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겨울이 오기 전에 아직 가을이 지나기 전에 널려진 그 영혼의 이삭들을 거두어 곳간에 들여야 할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학교에서 보리 이삭을 얼마만큼 주어 오라는 지침을 따라 학교를 마친 후에 이미 곡식이 거두어진 보리 밭에 가서 널려 있던 이삭을 주어 학교에 가져 간 기억이 있습니다. 그 때는 그 이삭을 줍는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성경에는 일꾼들이 추수하는 보리밭에 가서 버려지고 방치된 보리 이삭을 줍는 여인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그 여인은 아직 매우 젊디젊은 새댁입니다. 그러나 매우 가난합니다.

보리 이삭을 주으려 갑니다. 아마도 그는 더운 날씨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남의 밭에 버려진 보리 이삭을 줍는 처지였지

만 행복하게 자원 하는 마음으로 이삭을 주우려 간 것 같습니다. 결국 보리밭에서 보리 이삭을 줍던 루터란 여인은 보아의 아내가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되는 자녀를 얻는 복된 여인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시어머니를 위하여 보리밭에 나아가 보리 이삭을 줍던 불쌍한 한 여인을 축복 하신 것이지요.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곡식이지만 영적 농부들이 잘 관리를 하지 못하여 버려진 이삭과 같은 영혼들이 교회 안과 밖에 많다는 사실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자녀들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곳간이라 할 수 있는 교회 안에 있어야 하지만 불행하게도 교회 밖에 방치되어 버려진 것과 같은 환경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삭에 무관심 하고 부스러기에 무관심 하고 소외된 것들에 무관심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님은

버려진 이삭과 같은 영혼들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리고 부스러기 같은 영혼에 대하여도 관심을 가지십니다.

우리 주님은 저는 물론 여러분 모두에게 (이삭 줍는 여인의 행복)에 눈을 뜨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영혼의 이삭을 주우려 나가는 전도자들을 축복 하십니다.

그리고 그 운명을 바꾸어 주십니다.

마치 루터의 운명을 바꾸어 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버려진 이삭을 주우려 보리밭으로 나아가던 젊은 여인 것처럼 영혼의 보리밭인 이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방치된 영혼들을 거두어 들여야 합니다.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낚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룻 2:2)

cyd777@hotmail.com



직식을 마치고 임직자들과 함께 기념촬영. 원내는 새벽기도회에서 말씀을 전한 김성국 목사

## 열매교회 창립22주년 감사 및 임직예배

“인생은 선택, 선택은 자유... 선택 결과에 책임져야”

열매교회(담임 김요섭 목사) 창립22주년 감사 및 임직예배가 4일(주일) 오전 11시30분에 열렸다.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김요섭 목사 사회로 열린 이날 예배는 토마스슈마우스 장로가 기도했으며 할렐루야 성가대가 찬양했다. 이어 임명진 목사(KAPC가주교회장, 라스베가스 좋은교회)가 ‘인생은 선택입니다(눅 13:24-25)’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임명진 목사는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선택은 자유이다. 그러나 선택한 바에 대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기에 무슨 일을 선택하든지 신중히 생각하고

선택해야 한다”며 “신앙생활은 전체적으로 선택이다. 평생 동안 예배생활에 충실할 것인지, 직분을 받아 봉사할 것인지, 어느 교회를 선택할 것인지 등이 있다”고 말했다. 임 목사는 “우리 영혼을 책임지는 신앙생활은 매우 중요하다. 직분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기에 축복이다. 신앙이 달라지고 더 잘되는 열매교회 되기 축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열린 임직식은 명예장로에 정용호 장로, 명예안수집사에 조동식 집사, 안수집사에 김중재, 조경훈, 최원석, 권사에 박경희, 배옥란, 황희자가 임직

됐다. 이어 김선중 목사(총회 선교회 본부장)가 권면 및 축사를 했으며 조경훈 안수집사가 임직자대표로 답사했다. 조 집사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시고 힘주시고 도우셔서 맡은 직분 합력하여 잘 감당할 수 있음을 믿는다. 믿음의 결실이 있기까지 말씀과 기도를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들이 되어 주의 몸 된 열매교회 기쁘게 섬기는 청지기 되겠다. 겸손한 모습으로 담임 목사의 목회를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예배는 본교회 안국련 원로목사 축도로 마쳤다.

한편 2일(토) 새벽 6시, KAPC 총회장 김성국 목사를 초청, 특별 새벽기도를 드렸다. 찬양팀의 찬양과 김요섭 목사의 인도로 드려진 예배에서 김성국 목사는 ‘꿈이 더 큰 자’(창 37:18-24)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김목사는 “하나님의 꿈은 어떤 때는 조롱받기도 하고 시련이 올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꿈을 이뤄 가신다.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주께서 함께하신다. 우리의 꿈이 있는 한, 좌절하면 안 된다”고 강조하며 “어떤 상황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자”고 설교했다.

(박준호 기자)



유기성 목사가 강의하고 있다

## 유기성 목사 초청 LA 목회자 세미나 열려

“목회의 성공이 목표가 아닌 예수님이 목표 돼야”

유기성 목사 초청 LA 목회자 세미나가 미주복음방송(사장 이영선 목사)과 MiCA(Missional Church Alliance) 공동주최로 5월 22일(월) 미주 복음방송에서 열렸다.

1부에서는 ‘예수동행과 목회’라는 주제로 유기성 목사가 지난 30여 년간 걸어온 예수동행 목회의 시작과 의미, 적용사례와 은혜에 관해 나누는 시간을 가졌고, 이상훈 총장(AEU 미성대학교)의 사회로 MiCA 소속 목회자 김우준 목사(토랜스주은교회 담임), 김태형 목사

(ANC 은누리교회 담임), 이정섭 목사(LA 은누리교회 담임)의 패널토의 시간을 가져 예수님을 의식하는 목회와 팬데믹을 지나오며 목회의 본질을 돌아보고 예수동행운동에 대한 이민교회의 적용점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유기성 목사는 “목회 중에 교회의 외형적인 성장보다 한 인격이신 예수님의 친밀함을 증명하는 계기가 있었다. 목회의 성공이 목표가 아닌 예수님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시작한 예수동행운동은 목회 및 사역 전

(정리: 박준호 기자)



학위 수여식을 마치고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 KAPC 개혁대학/신학대학원 42회 학위 수여식

“우리의 뿌리인 주님을 닮아 십자가의 사람이 되라”

KAPC 개혁대학/신학대학원(총장 이정현 박사) 42회 학위 수여식이 3일(토) 오전 11시 대흥장로교회(담임 김경훈 목사)에서 열렸다.

양수철 박사(본교 이사장)의 사회로 시작된 학위수여식은 양경선 박사(남가주교회장) 기도, 유진상 목사(총회 서기) 성경봉독과 오위영 목사 특별찬양의 후 김성국 박사(총회국 총회장은 ‘주님의 쓰심에 응답하며’(딤후 2:20-21)의 제목으

로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길, 사명의 길로 함께 가자”며 “그릇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그릇이 있다.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그릇은 첫째로, 깨끗한 그릇이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갖추어도 깨끗하지 않으면 쓰이지 않는다. 진리의 사람, 십자가의 사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 둘째로, 거룩한 그릇이어야 쓰임을 받는다.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다. 성령으로 거룩해 져야 한다. 우리의 뿌리인 예수를, 교수를, 학교를 잊



나성순복음교회는 젊은 부부들에게 출산 장려금을 줄 예정이다. 사진은 이 교회 헌아식

## 나성순복음교회, 출산 장려금 지급

“출산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고 축복이다”

나성순복음교회(담임 진유철 목사)가 젊은 부부들에게 출산 장려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에서는 이미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미주 한인 청년들도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경향이 현저해지고 있는 상황속에서 나성순복음교회는 자녀 출산과 육

아를 격려하고자 출산 장려금을 지원키로 했다.

교인 가운데 첫째 자녀 출산 시 1천 달러, 둘째 출산 시 2천 달러, 셋째 출산 시 3천 달러, 넷째 출산 시 5천 달러를 지원하며, 다섯째부터는 교회에서 더욱 특별한 선물을 준비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장려금이 단순히 금전적 도움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기 위해 교회 측에서는 담임목사가 집례하는 헌아식 때 교인이 기도하고 축복하며 장려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진유철 담임목사는 “출산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있는 축복이다. 젊은 부부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을 다스리는 성경적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격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리: 박준호 기자)

## 월드미션대 밴킷



월드미션 밴킷을 마치고 공연출연자들과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임성진 박사) 밴킷이 2일(금) 오후 6시에 열렸다. 이날 밴킷은 3일(토)에 열린 32회 학위수여식에서 졸업하게 된 졸업생을 본교 동문들과 교수들이 축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본교학생 처장인 윤임상 교수 사회로 시작된 밴킷의 1부 순서는 임성진 총장이 환영사를 했으며, 황상희(BACC), 박차순(BSN), 명재관(M.Div), 최영희(MACP) 김강인(DMA) 등 각 전공별 졸업생 대표의 감사 나눔의 시간이 있었다. 2부 만찬에 이어 3부 콘서트는 본교 졸업생이자 재학생인 소프라노 클라라신, 테너 오위영, 최원현, 보컬리스트 허지애, 최현경 등이 출연하여 아름답고 은혜로운 공연을 펼쳤다.

(박준호 기자)

# 동부교계 기사판

## 뉴욕기독교예술선교회 찬양연주회

뉴욕기독교예술선교회(이사장 김동석)는 Light House Pregnancy Resource Center 후원을 위한 찬양 연주회를 6월 11일(주일) 친구교회(담임 반상석 목사)에서 저녁 6시에 개최한다.

▲문의: 516-487-7223, nycpafoundation@gmail.com

## 뉴저지교협, 제36회 뉴저지호산나전도대회 "인생,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뉴저지교협(회장 박근재 목사) 주최로 제36회 뉴저지호산나전도대회가 "인생,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을 주제로 6월 23일(금) - 25일(주일)에 한소망교회(담임 정세훈 목사)에서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원로)를 강사로 모시고 개최된다.

▲문의: 김동권 목사 201-394-7821

#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제 34회 졸업예배 및 학위 수여식

###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죽도록 충성하는 청지기 되길...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학장 김성국 박사) 제 34회 졸업예배 및 학위 수여식이 6월5일(월) 오후 7시 퀸즈장로교회에서 열렸다.

학장 김성국 박사의 사회로 시작된 졸업예배는 임병순 목사(뉴욕노회장) 기도, 김석남 목사(캐나다분교 교무처장) 성경봉독, 블레신과이어 찬양이 있는 후 백운영 박사(이사)의 설교로 이어졌다. 백운영 박사는 '교회에 주신 능력 (엡 3:9-12)'의 제목으로 "신학은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력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생명력을 주셨고 영광의 그 보좌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다"며 "하나님 안에서 배운 복음을 붙잡고 매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사역지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기태 박사(학감)의 학사보고가 있는 뒤 학장 김성국 박사가 학위를 수여하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것을 시간으로 또 모든 축복으로 받았으니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지 않는다면 다 도둑놈이니 도둑질하지 말라"며 "개혁주의 신

학을 배운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청지기의 삶을 살라"고 훈시했다. 이어 정인수 목사(총동문회장)가 졸업생을 위한 기도와 이용걸 박사(교수) 격려사와 김남수 목사(교수) 축사, 이윤석 박사(교수) 권면이 있었다.

졸업생 대표 주경옥 학생은 "신학교의 배움을 토대로 세상에 혼돈된 가치관 속에서 길을 잃은 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며 헌신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겠다"고 답사를 전했다. 이어 기념품 증정의 시간을 가진 후 강기봉 목사(학생처장) 광고, 정관일 박사(캐나다분교장)의 축도로 학위 수여식을 마쳤다.

이날 △신학석사(3) 함미희, 허준, 황동수 △신학석사수로 (2) 김정미, 이명옥 △목회학석사(10) 김경, 김해련, 김호중, 박찬유, 이성주, 임지홍, 주경옥, 김진원, 이종배, 최재만 △기독교 교육학석사(1) 박경희 △선교학석사(1) 김성은 △신학학사(12) 김지현, 김혜환, 성혜경, 송점숙, 차동미, 차진희, 에르킨굴, 파향, 르스켈, 누르지나, 알렉사드르, 제니스 총 29명이 학위를 받았다.

(홍현숙 기자)



뉴욕장로성기단 창단 27주년 기념 및 제 17회 정기연주회가 진행되고 있다

## 뉴욕장로성기단, 창단 27주년 기념 연주회

### 되돌아보니... "모든 것이 은혜였소"

뉴욕장로성기단(단장 전병삼 장로) 창단 27주년 기념 및 제 17회 정기연주회가 "모든 것이 은혜였소"라는 주제로 6월4일(주일) 오후 6시30분 프라미스교회(담임 허연행 목사)에서 개최됐다.

허연행 목사의 기도로 시작된 연주회는 임원회 집사(CTS 방송국)가 사회를 맡았으며 크리스탈 앙상블의 서주 '주께 드린 찬양'의 연주 후 뉴욕장로성기단의 합창이 진행됐다.

뉴욕장로성기단을 응원하기 위해 뉴욕장로성기단 사모회는 우크렐레를 기초부터 꾸준히 배워 선보이는 시간을 가졌고, 뉴욕권사선교협창단의 찬양, 프라미스 국악선교단의 부채춤 몸찬양과 아름다운 자연의 소리를 내는 뉴욕·뉴저지 팬플랫 찬양 선교단의 악기 연주 찬양의 열기를 더했다. 또한 크리스탈 앙상블 악장 유안나의 바이올린 독주와 이애실 교수의 독창도 함께 했다.

마지막 무대는 모든 출연진들이 연합으로 '예수님이 좋아 좋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부르며 찬양을 홀로 받으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후원금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다. 뉴욕장로성기단 후원이사회는 뉴욕장로성기단

정기연주회와 해외찬양선교를 위해 10,000불을 후원금으로 전달했다. 뉴욕장로성기단은 선교 후원금으로 튀르키예(지진피해구호) 시드선교회(이준식 장로 대신 전달), 우크라이나(전쟁난민구호) 사랑의 터키함미재단 전상복 회장, 새생명선교회(암환자를 위한 사역) 심의례 전도사, 더나눔하우스(노숙자 사역) 박성원 목사에게 각각 전달했으며 이준성 목사(뉴욕교협 회장)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뉴욕장로성기단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음악을 통한 선교활동과 사회봉사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삶을 감당하기 위해 창단돼 27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본 성기단은 소외된 이웃을 후원하기 위한 음악회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양로원을 방문하여 이웃의 연약한 자들을 찾아 찬양으로 위로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있다. 또한 청소년센터 음악회 등 다음세대를 세우는 사역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동참하며 사역을 이어가고 있다.

뉴욕장로성기단에 관한 문의는 단장 전병삼 장로 914-703-0477, 총무 배상규 장로 201-214-9254 로 하면 된다.

(홍현숙 기자)



학위수여식 후 기념촬영을 했다

## Midwest University 개교 37주년 기념 행사 및 학위수여식 거행

### 세인트루이스 본교 정진경 박사 세계선교기념관에서 열려

올해로 개교 37주년을 맞이한 Midwest University(설립자/총장 Dr. James Song)는 지난 5월 15일(월)부터 18일(목)까지 세인트루이스 본교에서 글로벌 리더십 세미나, 음악회, 학위수여식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다.

글로벌 리더십 세미나가 16일(화)부터 17일(수)까지 세계선교동역네트워크 KINMET 대표회장 권준 목사(시애틀 형제교회), Dr. James Song 총장(Midwest University 설립자, 총장), Dr. William Federer (American Minute 설립자), 차기 민주당 당내 경선후보인 Dr. Robby Well를 강사로 진행됐다.

17일 저녁에는 개교 37주년 기념 "Midwest Summer Concert"가 본교 정진경 박사 세계선교기념관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저녁 6시30분부터 시작된 콘서트는 성악, 피아노, 첼로 등 졸업생 음악의 연주와 지역교회 성가대가 찬조 출연하여 하나

남께 영광 돌리는 뜻깊고 은혜 넘치는 시간을 가졌다.

18일 오전 10시 Dr. Earl Haskins(본교 이사)의 사회로 시작된 2023년 학위수여식은 Dr. William Federer(본교 석좌교수)의 기도, 이사장 Dr. Lindell F. Shumake 전 미주리주 하원의원의 메시지에 이어, Dr. Robby Wells의 특별 메시지가 있었다. 교무처장 이희철 교수의 2023년 졸업생 학사보고를 마친 후 Dr. James Song 총장이 2023년도 졸업생들에게 학위를 수여하였다. 이날 권준 목사(시애틀 형제교회)에게 교육선교와 기독교 리더로서 활발한 활동의 공로를 인정하여 글로벌 리더십 명예철학박사 학위를 수여하였다. 학위수여식에 이어서 최일식 박사(전 동문회이사)와 Richard West 미주리주 하원의원의 축사, Dr. Stephen Combs(본교이사)의 축도로 학위수여식을 마쳤다.

(기사제공: Midwest University)



제 34회 졸업예배 및 학위 수여식 후 사진촬영을 했다



뉴욕선교찬양축제 모든 참가자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 뉴욕실버선교회, 뉴욕선교찬양축제 열려

### 총9개 팀 참가, 뉴욕 실버들의 복음전파의 열정을 담은 합창

뉴욕실버선교회(회장 김재열 목사) 주최로 '선교찬양축제'가 각 교회의 실버 연령대의 찬양팀들이 출전한 가운데 6월 4일(주일) 오후 4시 뉴욕센터교회(담임 김재열 목사)에서 개최됐다. 총 9개 팀이 이날 선교찬양축제에 출전하여 은혜롭고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 드렸다. 환영사에서 회장 김재열목사는 "은퇴 후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현재 케냐와 멕시코에는 실버선교회 파송 80세 이상 선교사들이 사역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다"며 "저평가된 실버선교 역량이 크게 개선됐다."고 환영사를 전했다. 1부 예배는 훈련원장 김경열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이사 이지용 목사(뉴욕세계사대교회 담임)의 대표기도, 이사 전광성 목사(하크네시아교회 담임)의 성경 봉독, 이사 김성기 목사(뉴욕교회 담임)의 설교로 진행됐다. 김 목사는 "은퇴 후 연금받으며 여행하는 삶과 성령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축복의 미래를 꿈꾸는 삶을 대비하며 예수님이 꿈 꾸는 마지막까지 모두 함께 꾸며 이루어 가야 한다"고 설교했다. 미주리인예수교장로회 총회장 김성국 목사(퀸즈장로교회 담임)는 축사를

통해 "이번 KAPC총회 중 맨하탄 타임스퀘어에서 목회자들이 함께 찬양하는 가운데 집회 예정이 있었던 동성애자들의 모임이 취소됐다든 소식을 듣고, 함께 찬양함이 마귀를 쫓는 능력이 있다"고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사무총장 이형근 장로의 광고와 이사장 이종식 목사(베이스айд장로교회)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이어 황규복 장로(뉴욕장로연합회 회장)의 사회로 시작된 2부 찬양제는 뉴욕실버선교협창단(단장 조철재 장로, 지휘 문삼성 목사), 뉴욕세계사대교회(대장 장경아 권사, 지휘 김일식 권사), 뉴욕센터교회, 센트럴교회시무장로중창단(지휘 광병국 장로), 퀸즈장로교회(단장 민미숙 권사, 지휘 윤두현 집사, 반주 송소영 집사), 뉴욕필그림선교무용단(단장 윤다이나나 권사, 중국인연합찬양선교단(단장: Yong, MD, 지휘:Patrick Yeung), 뉴욕교회(지휘 소유영 전도사), 베이스айд장로교회(지휘 안상균 집사)가 찬양했으며 마지막에 전체 연합찬양으로 "이 세상 어딜 가든지"를 다함께 찬양함으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김재상 기자)

### 제4회 뉴욕신학세미나

일시: 6/19(월)-20(화) 9am-3pm  
주제: "신학과 설교, 구약과 해석학"  
회비: 50불(교재, 책, 식사포함)  
대상: 목회자, 신학생  
장소: 퀸즈장로교회 방음실 2층  
주소: 8900 23rd Ave, East Elmhurst NY 11369

(1) 성경 본문의 디테일에 승부를 걸라! (십일조와 설교)  
(2) 세상과 본문을 자신에 정직하라! (시 위인과 설교)  
(3) 영으로 유익하라! (말기와 설교)  
(4) 견고한 성경 신학적 틀을 가지라! (언약 신학과 설교)  
(5) 시간을 조각하는 국작가가 되라!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그리고 설교)  
(6) 성경적 영성을 추구하라! (루터의 영성/신학 방법론과 설교)

김지찬 교수 (총신대학 연구원)

## 제4회 뉴욕 신학세미나, 강사 김지찬 총신대 교수 '신학과 설교, 구약과 해석학'

퀸즈장로교회(담임 김바나바 목사)는 6월 19일(수)부터 20일(목)까지 바울관에서 제4회 뉴욕 신학 세미나를 진행한다. 올해는 김지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구약학 교수가 '신학과 설교, 구약과 해석학'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한다.

세미나는 '성경 본문의 디테일에 승부를 걸라!(십일조와 설교)', '세상과 본문과 자신에 정직하라!(시91편과 설교)', '장르에 유의하라!(욥기와 설교)', '견고한 성경 신학적 틀을 가지라!(언약 신학과 설교)', '시간을 조각하는 국작가가 되라!(크로노스와 카이로스, 그리고 설교)', '성경적 영성을 추구하라!(루터의 영성/신학 방법론과 설교)' 등 6회의 강의로 진행된다.

퀸즈장로교회는 지난 2019년 창립 54주년을 맞아 지역교회 목회자들에게 양질의 정보 제공을 위해 신학 세미나를 시

작했다. 김바나바 담임목사는 "많은 분들이 신학과 설교를 별개라고 생각하는데 신학이 튼튼하지 않고서는 건강한 설교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설교와 해석학에 대한 컨퍼런스와 세미나를 갖게 됐다"고 전했다. 올해 창립 53년을 맞은 퀸즈장로교회는 "KCQ(퀸즈장로교회)는 멈추지 않는다! 잘 안아주는 교회, 잘 먹여 주는 교회, 잘 보내 주는 교회"라는 표어를 걸고 역동적인 사역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특별히 설교를 중심으로 총 100여 명이 모리타니아, 과테말라, 브라질, 우간다, 도미니카공화국, 한국으로 선교여행을 떠난다.

회비는 50불(교재, 책, 식사포함)이며 선착순 50명이다. 집회 관련 자세한 내용 및 참여안내는 퀸즈장로교회 홈페이지(kcqny.org) 혹은 전화 (718-925-1329)로 문의 가능하다. (정리: 김재상 기자)

### 피종진 목사 6월 부흥성회

○ 총신대학교 56회 동문회 회장  
○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 서울대학교 총동문회 이사  
○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영어 연구원 동문회 회장  
○ 미국 Philadelphia Faith 대학원 총장 Carl McIntire(D.Min)  
○ 미국 Henderson Christian University 총장 Henderson Beik(T.Th.D)

1010-5255-7777  
GodBless3377@gmail.com

1(목)~2(금) 천안 위대한양육교회 (윤재민 목사) 010-6352-0691  
5(월) 저녁 안산시 연합 특별성회 주최 : Good TV 부흥사 협의회 (대표회장 김용희 목사) 02-7291-0291 장소: 안산 기쁨교회 (김순희 목사)  
6(화) 오후 서울 강남순종교회 (오승준 목사) 010-3942-8434  
8(목) 오전 연세대학교 연부협 Event Function  
10(토) 오전 Enterprise Blessing  
10(토) 오후 국제선교회 (이사장 김영준 목사) 010-9260-1091

제 231차 해외성회 (231st Overseas Assembly)

12(월) 일본 (JAPAN) 동경 나리타 총회신학 (학장 정스대만 선교사)  
13(화) 일본 (JAPAN) 나라타 사랑교회 (담임 정스대만 선교사, 김대실 선교사)  
14(수) 일본 (JAPAN) 예수 사랑교회 성회, 한울장로성기단 특별출연  
15(목) 일본 (JAPAN) 동경 우에노공원 전도사역 및 일본인과 중국인을 위한 황금문화성회 한울장로성기단 특별출연  
16(금) 일본 Narita 출발

16(금) 저녁 서울 강남반석교회 (강시랑 목사) 010-8331-3431  
19(월)~20(화) 서울 위대한양육교회 (임미향 목사) 010-6201-8374  
22(목) 오전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주최 : 사단법인 누가선교회 (총재 정근모 전 장관 대표회장 김성만 목사) 010-6230-5530  
22(목) 오후 제천 열방교회(최미나 목사) 010-2985-9077  
주최 : 한국기독교 여성총연합회(대표회장 권영자 목사)

23(금) 미국 (USA) 조지아 아가페선교회 (강진구 목사) (678) 462-7526  
24(토) 미국 (USA) 미주 동남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동문회 연합성회 (준비위원장 윤도기 목사)  
25(주일) 미국 (USA) 아틀란타 화평장로교회 (김용환 목사) (770) 963-3124  
26(월) 미국 (USA) 아틀란타 목회자 세미나 (준비위원장 김영민 목사)  
27(화)~29(목) 미국 (USA) Arkansas 제자들과교회 (전남수 목사) 501-920-9049  
주최 NYSKC World Mission (HO 뉴욕)  
총재 피종진 목사 (서울), 대표회장 최고선 목사 (뉴욕)  
사무총장 김은목 목사(LA), 준비위원장 전남수 목사(Arkansas)

대한예수교장로회 www.nasca.or.kr  
남서울중앙교회 Tel. 02)3411-9191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40(개포동) Fax. 02)401-7770





### 청년 3500명이 현충일에 체육관에 모인 이유는?...

#### 여의도순복음교회, 청년 성령축제 '2023 더홀리스피릿 페스티벌' 개최

CCM '하나님의 열심'이 6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 울려 퍼졌다. 체육관에 모인 기독교 청년 3500여명은 제각기 모습으로 가사를 음미했다.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이, 눈물을 흘리는 이도 있었다. 여의도순복음교회(이영훈 목사)가 코로나19를 지나며 영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을 청년들을 위로하고자 개최한 찬양 집회 '2023 더 홀리스피릿 페스티벌' 모습이다. 올해로 15회째를 맞은 이 집회는 6년 만에 교회가 아닌 외부 장소에서 대규모로 열렸다. 올해 주제는 '홀리 임팩트(Holy Impact)'였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청년들은 때론 찬양곡을 부르며, 때론 설교와 간증을 들으며 다시금 예수만이 참 소망임을 마음에 되새겼다. 이영훈 목사도 '예수나의 참 소망'이란 제목으로 설교하며, 여러 고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청년들을 위로했

다. 이 목사는 "시련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 삶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 주신다"며 "혹시 우리가 시험에 들어 넘어지더라도, 회개하고 주님을 붙들면 실패한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하나님께서서는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성품을 다듬으신 후 비로소 소망을 이뤄주신다"며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너무나 사랑하신다. 세상의 중독에 현혹되지 말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며, 산 소망이 되는 예수님만을 바라보자"고 덧붙였다.

이 목사에 이어 설교를 전한 황선욱 여의도순복음분당교회 목사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성령 충만해져야 함은 옵션이 아니라 필수라 생각한다"며 "

청년들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견디기만 하기보다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선포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년들은 마약, 도박, 음란, 알코올, 동성애 등 모든 중독의 유혹을 거부하며 신앙 안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겠다고 기도했다. 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세상의 회복을 위해 힘쓰겠다는 다짐도 했다. 해리티지매스콰이어, 마커스워십, 빅콰이어, 팀조슈아, 진주, 류하나, 우미엘 목사, 강한별 등 가수와 찬양 사역팀이 이끄는 다채로운 찬양 예배는 집회의 열기를 더욱 뜨겁게 만들었다. 이 집회 홍보대사 가수 선예는 찬양을 곁들여 부르며 아픔과 어두운 상황에 놓였던 과거 자신에게 찾아온 예수님의 사랑을 간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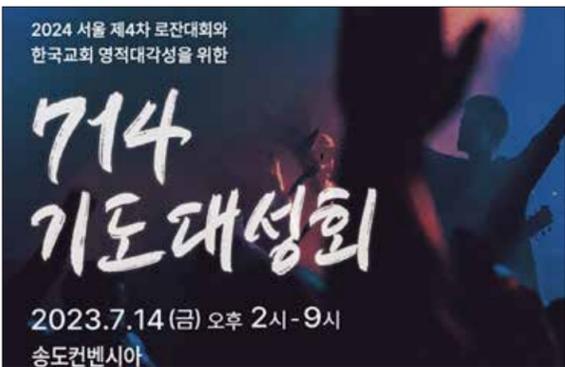
마약과 도박, 동성애 등 각종 중독과 멀어지겠다는 결단을 다시금 되새기는 청년들도 있었다. 김원범(27)씨는 "마약, 담배, 술은 하지 않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중독된 거 아니겠나"며 "오늘 결단의 기도를 드리며 다시금 마음을 다잡았다"고 했다. 이번 집회 준비위원장 김남준 목사는 "언제 중독이 청년들 삶을 파고들지 모른다. 오늘 한 청년들의 결단은 예방 주사의 의미도 있다"면서 "그동안 온라인 예배만 드렸지만, 오늘을 기점으로 주일 예배를 지키겠다는 청년도 있었다. 이번 집회를 계기로 모든 이들의 가정과 예배가 회복돼 한국교회의 부흥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내년에 한국에서 열리는 제4차 로잔대회는 애즈버리 부흥운동과 마찬가지로 한국교회에 영적 각성과 부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교회의 본질과 사역 구조의 변화뿐 아니라 세속화가 초래하는 상대주의와 다원주의 사회에 영향력을 회복하는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잔운동은 다양한 지역 다양한 연령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복음의 진보를 위해 연대하고 기도하는 운동이다. 1989년에 출범한 한국로잔위원회는 한국교회의 변화와 갱신을 위해 로잔운동을 알리고 그 정신을 실천하도록 돕고 있다.

한국로잔위원회는 다음 달 14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제4차 로잔대회와 한국교회 영적 대각성을 위한 기도대성회를 개최한다.



### 애즈버리 부흥운동의 정신, 로잔대회에서도 구현한다

####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와 선교단체 및 지역사회를 치유하는 운동

한국로잔위원회(위원장 이재훈 목사)가 '애즈버리 부흥운동과 MZ세대'를 주제로 2023년 제2차 로잔 선교적 대화를 개최했다. 5일 로잔위에 따르면 최형근 서울신학계 교수는 지난 3일 화상플랫폼 줌을 통해 열린

대회에서 "애즈버리 부흥운동은 자발적이고 영적으로 민감한 Z세대를 통해 역사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와 선교단체 및 지역사회를 치유하는 운동"이라며 "세속화 침체에 빠진 한국교회에도 중요한 교훈을



### 부산 국가유공자 200여명 "기도는 세상 어떤 무기보다 강력"

#### 부산지방보훈청 주관 나라사랑기도회...

지난 2일 한머리에 주름이 가득한 노신사 수십 명이 부산보훈병원 대강당에 모였다. 이날 모인 200여 명은 손에 태극기를 쥐고 있었으며 모두가 대한민국 군인이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강당 뒤쪽은 링거를 맞은 채 참석한 환자들도 많이 눈에 띄었다. 모두 국가유공자들이다. (사)한국보훈선교단 이사장 김석규 목사는 "국가유공자와 가족을 그리고 회원들과 환자들을 위문, 위로하고 특히 후세들에게 6·25 전쟁을 통해 존유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보준했던 선배들의 역사적식을

계승하고자 행사를 준비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부산지방보훈청 주최로 열린 제39회 국가유공자 나라사랑 기도회는 한국보훈선교단 부산지부 사무총장 정홍수 목사의 사회로 1부는 국민의례와 호국영령 및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2부 예배시간에는 연산제일교회 강성현 장로의 대표기도에 이어 부산기독교총연합회 상임회장인 김영완 하단교회 목사가 "나라를 구하는 기도의 힘(렘 33:1~3)"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김 목사는 "기도는 이 세상의 어떤 무기보다 강력한

무기다"면서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며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선포했다.

이번 나라사랑기도회를 주관한 (사)한국보훈선교단 부산지부(지부장 조무기 장로)는 6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조무기 지부장은 "장학생 선발 기준은 국가유공자 자녀로서 건전한 정신과 모범적인 생활로 학교생활 잘하는 학생들이 추천 받았으며 계속해서 장학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박요섭군(부산여명중 3년)은 "이렇게 큰 자리에서 장학금을 받게 돼 영광이다"며 소감을 밝혔다. 박군은 모태신앙자로 4대째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다.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군가제창과 만세삼창이었다. 백발의 국가유공자들이 한 손에 태극기를 들고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앞으로...'라고 군가를 부를 땐 현역으로 돌아간 듯 강한패기로 열창했다. 이어 한국보훈선교단 부산지부 상임고문 정중해 장로의 선창으로 대한민국 만세삼창을 외친 뒤 감정에 북받치는 듯 눈시울을 붉혔다.



### 분단의 현장에서 '평화의 노래' 로 남북 연결했다

#### 국경선평화학교, 6일 강원도 철원에서 준공식 개최

정전 70주년을 맞아 평화통일 일꾼을 육성하는 분단의 현장에서 평화의 노래가 울려 퍼졌다. 1만 시민은 전쟁으로 남북 분단의 아픔과 갈등의 늪에 빠진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노래를 불렀다. 68번째 현충일을 맞은 6일 강원도 철원 국경선평화학교(대표 정지석 목사) 본교에서는 학교 건물 준공식과 '1만 시민 DMZ 평화 노래 부르기' 행사가 개최됐다. 국경선평화학교는 남북한이 평화통일을 실현할 때 온전한 독립을 이룬다

는 뜻을 담아 2013년 3월 1일 개교했다. 전쟁 위협과 평화의 노력이 공존하는 DMZ(비무장지대) 현장에서 남북한 평화통일 일꾼을 육성하기 위해 세워졌다. 학교는 이번 준공식으로 개교 이래 처음 온전한 학교 건물을 갖게 됐다.

학교는 지난 10년간 강원도 철원 민통선 남방한계선 옆에 지어놓은 'DMZ평화문화광장'을 빌려 사용해 왔다. 그러다 지난해 한 시민이 식품회사로 쓰였던 건물과 부지를 매입해 국경선평화학교에 기부했다. 학교

는 해당 건물을 용도에 맞게 1년여에 걸쳐 리모델링했다. 총 5개동으로 구성된 학교는 40명이 머물 수 있는 숙소를 비롯해 도서실, 교수연구실, 음악감상실, 아카이브, 콘퍼런스 홀, 테라스 카페, 기념품 제작을 위한 목공실 등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새로 단장한 학교는 '시민들의 참여로 지어진 건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앞서 학교 이사회는 1만 시민 참여를 목표로 건축 기금 캠페인을 전개했다. 현재까지 독일과 미국 등 국내외에서 3300여명의 시민이 기부에 동참했으며, 캠페인은 1만명 달성 때까지 계속된다. 준공식에 참석한 시민들은 나라와 국민을 지키다 희생한 이들을 위해 묵념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지석 목사는 "남북평화를 위해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야 하는 시기가 도래했다"면서 "새로운 학교가 세워져 시민·청소년 평화운동을 활발히 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분단 사실을 모르는 청소년이 많다"면서 "이곳에서 남북의 평화를 외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고령의 6·25 참전용사께 마음 모은 보은 늦지 않도록...

#### 새에덴교회 17일부터 6일간 한미 참전용사·가족 초청 행사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지역교회들의 보훈행사가 잇따르고 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의 충성스러운 마음을 기리는 취지에서다. 교회들은 6·25 참전용사를 국내로 초청하거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초교과 목회자들이 참전용사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경기도 용인 새에덴교회(소강석 목사)는 국제 규모의 참전용사 보은 행사를 시작한 민간 차원의 선구자나 다름없다.

2007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참전용사 방한 초청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국내외 참전용사에 대한 보은 행사를 이어오고 있다. 이 교회 교인들은 '라스트 브리지(Last bridge)'라는 이름의 참전용사 돌기 목적 헌금에 동참하며 행사 기금을 십시일반 모아왔다. 교회는 오는 17일부터 6일간 한·미 양국 참전용사가 참석하는 '제73주년 6·25전쟁 및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참전용사 초청 보은행사'를 개최한다. 앞서 교회는 주일학교 학생 1000

여명도 참전용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쓰기도 했다.

방한 행사에는 21세 때 6·25전에 참전한 폴 헨리 커닝햄(93) 전 미국 한국전참전용사회장 등 미국 참전용사 6명과 가족 등 미국 인사 47명과 한국 참전용사 150여명 등이 초청됐다. 올해는 4년 만에 한·미 참전용사와 가족이 대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방한단에는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했을 때 태극무공훈장을 수여한 고 발도메로 로페즈 미 해군 중위 유가족을 비롯해 할아버지부터 3대가 한국에서 근무한 가족 등이 포함됐다. 로페즈 중위는 적의 수류탄이 날아들자 자신의 몸으로 덮쳐 부하들을 구한 뒤 전사했다.

소강석 목사는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회에서 "90세 넘는 미국 참전용사들의 방한이 쉽지 않아 이분들이 우리나라를 찾는 초청 행사는 올해가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내년부터는 미국을 비롯해 참전용사가 거주하는 국가를 직접 방문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 FAMILI STUDY

Food And Microbiome Longitudinal Investigation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참여자 모집 안내**

-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NYU 의대 웨일리 연구팀 (총책임자: 안지영 교수)은 세계 최초로, 여러 민족의 식습관, 환경, 박테리아와 만성 질병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특히 미국에 거주하시는 한국인의 질병발생 및 위험요인을 연구하여, 질병예방 및 보건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의료보험이나 신분증에 관계없이, 40세 이상인 미국내 거주자는 한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을 보내 주시면,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우송해 드립니다.
- 집에서 완료하신 후, NYU의대로 무료 우송해 주시면, 25불 기프트카드를 보내 드립니다.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연락처**

**FAMILI Study**  
(Hee Choi, MS, RD)  
NYU School of Medicine  
180 Madison Avenue # 3-23  
New York, NY 10016

전화: 646-501-3673 | 646-501-3674  
문자: 929-410-4475  
이메일: hee.choi@nyulangone.org  
웹사이트: <http://www.nyufamili.org/kor/index.php>

SCAN ME

한분 한분의 참여는 우리의 2세에게 보다 건강한 사회를 남겨 줍니다.

여러 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교회선교의 선순환 (virtuous cycle) (33)

조용중 선교사  
(KWMC 사무총장, Ph.D)



## 팬데믹 이후 보람된 단기선교를 위한 준비

팬데믹을 지나며 여름 단기 선교가 다시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각 교회들은 기지개를 펴며 단기선교를 위한 단원들을 모집하고, 선교비 모금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소식들이 여기저기에서 들립니다. 이는 미주한인교회들의 고무적인 모습입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모든 분야에서 움추러 들었던 교회들에서 팬데믹 이후의 단기선교는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 여기에 몇 가지 단기선교를 위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여 봅니다.

보람된 단기선교를 위해서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준비하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선교는 복음전파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개인적인 간증, 가르침, 토론, 예배등 직접적이며 다양한 방법으로 이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전파는 직접적인 방법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선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방적인 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복음의 직접적인 선포는 오히려 큰 역효과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신들 뿐 아니라 현지에 있는 장기선교사들을 위험에 빠지게도 합니다. 구체적인 행동과 서비스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으며 교육, 의료서비스, 건설 프로젝트, 식품및 필수품 나누기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기선교를 통하여 현지 커뮤니티를 직접적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현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현지인들이나 선교사가 힘이 없어 생각할 수 없었던 방법이나 감히 도전해 볼 수 없었던 일들을 단기선교팀을 통

하여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단기선교를 통해 국제적인 이해와 화합 증진을 위한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선교활동은 참가자가 다른 문화와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에 대한 사랑과 존중을 심어주는 중요한 경험입니다. 이는 국제적인 화합과 이해증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단기간의 열매 보다는 장기적인 포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기선교는 개인적인 성장과 신앙의 공유를 이룰 수 있습니다. 많은 단기선교 참가자들의 경험을 통해서 나온 열매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자신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단기선교를 통하여 자신의 개인 신앙에 대하여 더 깊이 이해하고, 만나는 사람들과 자신의 신앙을 공유하면서 개인적인 성장을 이루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성장과 신앙의 공유는 상호작용하며 결국 개인의 성장과 복음의 확산을 보게되는 것입니다.

복음전파, 그리스도의 사랑 나누기, 커뮤니티 지원, 국제적인 이해와 화합 증진, 개인적인 성장과 신앙의 공유 등의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단기선교는 단순한 문화 체험이나 지역관광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곳에서 특정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간다는 것을 분명히 할 때 더욱 알찬 단기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보람된 단기선교 준비는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준비도 중요요합니다. 먼저 기도와 영적으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단기선교는 가장 깊은 곳에서 영적인 체험입니다. 특히 사탄이 가장 싫어하고 방해하고 싶은 일이 선교이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방해는 나타납니다. 선교 준비 과정에서, 선교참여 기간동안, 선교사역 이후에 시간을 초월하여 나타납니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납니다. 그렇기에 참여자들이 영적으로 잘 준비되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팀이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교를 가고자 하는 지역과 대상자들의 문화에 대해 배우는 것은 기본이여야 합니다. 문화 이해는 문화 존중으로 시작됩니다. 단기선교라고 해도 언어, 음식, 의상, 풍속 등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필수적입니다. 가능하다면 그곳의 간단한 인사말이나 일상적인 표현을 배우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문화를 배우기 위해서는 인터넷, 책, 학술지, 다큐멘터리 등을 통해 해당 국가의 역사, 예술, 음악, 신문화, 종교, 사회 구조 등에 대해 연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팀이 함께 분담해서 서로 발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능하다면 방문하려는 국가의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교류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주에서는 국내에 살고있는 해당 문화권의 사람들

과 교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초청하여 전통적인 요리를 배우거나 그들의 문화에 대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볼 수도 있습니다. 음식은 그 나라의 문화, 역사, 지리적 위치를 반영하며 새로운 문화를 체험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문화 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국가나 문화의 축제, 공연, 전시회 등에 참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배우려는 노력은 현지인들을 만나게 될 때 자연스럽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풍겨나게 됩니다.

보람된 단기선교를 위해서는 물질적인 준비도 중요합니다. 여행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여행 문서(여권, 비자 등)를 준비하고,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거나 교통수단을 준비하고 숙박 시설을 확보해야 합니다. 현지에 있는 초정자가 선교사일 경우 자세한 안내를 하겠지만 구체적인 준비에 대해 사전

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때에는 현지에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소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가는 사람의 마음대로 프로그램을 정해놓고 현지에서 안내만 해달라는 단기팀은 선교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정 준비도 잘 해야 합니다. 여행비, 숙박비, 현지에 필요한 비용 등을 포함한 선교 비용을 계획하고 필요한 자금을 모아야 합니다. 때로는 학생들 팀에서 선교지를 방문하여 선교사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가지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참으로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선교사가 단기선교팀을 받아 재정적인 수입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방문하는팀이 선교사의 일 반 재정에 도움을 주는 것은 격려가 됩니다. 필요한 재정을

준비하기 위하여 교회에서는 바자회 같은 모금 운동을 통해서 다른 교인들에게 알리고 동참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용하게 갔다 오는 것 보다는 전 교회가 함께 참여한다는 의식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단기선교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여행용품, 개인 위생용품, 의약품, 교재 등 필요한 물품들의 체크리스트를 미리 만들고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선교를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개인들의 건강을 체크해야 합니다. 여행 전에 건강을 체크하고 필요한 예방 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지역에 따른 풍토병에 대해 알아보고 긴급 의 약품을 팀에서 준비하여야 합니다.

보람된 단기선교는 팀워크입니다. 팀이 잘 준비되어야 합니다. 선교 팀멤버의 신뢰와 협력을 구축하기 위해서 팀빌딩 활동이 필요합니다. 팀빌딩은 역할 분배가 중요합니다. 팀 내에서 각 멤버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각 팀원이 선교에서 기대하는 바와 개인적인 목표를 공유하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 이를 바탕으로 팀의 공동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언급한 단기선교의 목적 가운데 어떤 부분들을 포함시킬 것인지 팀의 수준을 보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문화 이해를 위한 워크숍을 가지면 좋습니다. 개인보다는 2-3명의 팀이 일정 분야를 조사하여 발표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상되는 선교 상황을 가정하여 롤플레이를 하는 것은 실제 상황에 대비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팀빌딩 게임이나 활동을 통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신뢰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사소통 및 충돌 관리 워크숍도 큰 도움이 됩니다. 팀에서 의사소통 방법을 배우고, 충돌이 발생했을 때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방법을 배우는 세션을 가지도록 합니다. 그리고 팀워크를 위해서 정기적인 모임을 가져 서로의 준비 과정을 공유하고, 문제나 우려 사항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팀원들이 서로를 지원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팬데믹 이후의 보람된 단기

선교는 사전 준비와 그 후속 활동이 함께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지낸 일주일이나 이주일 이전부터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현지와 온라인으로 지속적인 연결이 되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젊은이들의 단기선교는 타종교인이라고 하더라도 친구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장에 남은 선교사에게 지속적인 온라인 협력을 할 수 있습니다. 팬데믹을 통하여 다양한 문명의 이기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지인들의 훈련을 돕는 방법도 가능 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이 온라인을 통해 컨설팅을 해줄 수 있습니다. 심지어 MK들을 위한 온라인 학교교육이나 보충수업들이 가능해졌습니다. 온라인으로 여름성경학교나 특별 리트릿을 하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팬데믹이 우리에게 보여준 무한한 가능성이 단기선교와 함께 열렸습니다. 이런 기회를 포착해야 합니다. 현장의 선교사와 긴밀한 소통을 통하여 현상이 필요에 적합한 단기선교의 준비가 필요하고 가능한 때입니다. 올해의 단기선교가 그 어느때 보다도 보람된 단기선교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기 바랍니다.

교회의 보람된 단기선교를 위해서는 역시 담임목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선교부나 관심있는 소수에게만 맡겨서는 안됩니다. 예배 시간에 어떻게 광고를 하는가에 따라서 성도들의 참여도가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담임목사의 단기선교에 대한 이해가 그 교회의 단기선교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의 단기선교 준비가 늦어지지 않도록 가능한 빠른 시기부터 팀워크 빌딩 활동을 시작하기 바랍니다. 보람된 단기선교를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단기선교팀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체 교회가 참여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단기선교는 미주한인교회의 활력소가 되어 왔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dr.yongcho@gmail.com

### One Story 21세기 말씀의 삶

홍요셉 선교사 (P국, 중동선교전략가)

## 27강(신명기 10-26장) 모세의 2차 설교를 중심으로 (1)

모세의 1차 설교가 끝나고 이제 계속되는 모세의 2차 설교입니다. 모세는 지난 시간들, 사건들을 회상하며 하나님의 백성에게 향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원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나

모세는 하나님이 명하신대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나'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와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냐(신 10:12,13)

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며(신 10:20)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하여 섬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허공을 치는 피상적인 외침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신 11:1,8).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교만한 목을 세우지 말아야 합니다(신 10:16). 또한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드러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사랑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신 10:17-19).

네 하나님 여호와와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모세는 하나님이 명하신대로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신 11:11,12)고 말합니다. 가나안 땅은 '비를 흡수하는 땅'입니다. 비를 흘려보내는 곳은 사막이 되지만 비를 흡수하는 땅은 비만 정기적으로 와주면 초목이 자랄 수 있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항상 돌보시며 지켜보시는 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안에서 사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해 섬기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심으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을 얻을 것이고 가축을 위해 들에는 풀이 자라고 백성이 배부르게 먹을 것입니다(신 11:13-15).

하나님의 백성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 마음이 미혹되어 다른 신을 섬기거나 절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못함으로 백성이 하나님의 땅에서 망하게 될 것입니다(신 11:16,17).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뜻에 두고 그 말씀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그것을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그 말씀을 강론하고 심지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여 지키고 지키고 또 지켜야 합니다(신 11:18-20). 그

래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행하신 일들을(신 11:2-7) 잊지 않고 이미 말한 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수준에 합한 자로 살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 바라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긍휼하심으로 돌보실 것입니다. 이와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면(신 11:22)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땅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강건케 하실 것입니다(신 11:23-25).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복과 저주를 백성 앞에 두었습니다(신 11:27).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복을 받아 하나님의 힘으로 살든지(신 11:27,32)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 신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거역하므로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고 저주를 받아 멸망하든지 말입니다(신 11:28). 그러므로 하나님의 땅에서는 모든 이방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불사르고 찍어야 합니다(신 12:1-3).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제물과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가족이 즐거워해야 합니다(신 12:4-7). 그렇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기쁘게 돌보시는 곳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hfamlyfa@gmail.com

# 매일가정예배

전화령(캄보디아 선교사)

whiteyou11@yahoo.com

## 월 산자로 사는 길 (롬8:12-13) 찬 204장

사도는 계속 신자의 삶에 귀한 지침을 주십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째,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의 긴밀한 연합을 이루십니다. 둘째,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합니다. 성령으로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기 위해 성경을 의존해야 하며 성경 속에 우리의

생각을 굴복시켜야 합니다. 셋째, 육신대로 살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자는 육체의 부패성을 따르는 작은 생각까지도 대적합니다. 내가 주의 소유임을 인식하고 모든 일에 그의 주되심과 나의 종됨을 인정할 때 우리는 영적 승리를 누립니다.

## 화 하나님의 아들들 (롬8:14-16) 찬 403장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사도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첫째,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라고 했습니다. 악령의 인도로 죄를 범하던 그들이 성령의 이끄심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둘째, 양자의 영을 받는 자입니다. 아들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양자의 영을 받아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못하면 그는 이 모

든 것을 잃고 맙니다. 셋째, 그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입니다. 성령받은 자의 뚜렷한 증거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를 아버지로 부를 마음이 없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약한 자리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면 그는 이미 그의 양자가 된 것입니다.

## 수 고난의 복 (롬8:17-18) 찬 495장

종교개혁자, 존 칼빈 선생이 좋아했다는 본문은 고난의 복에 관해 말합니다. 왜 고난이 복입니까? 첫째, 영광을 받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이 복이란 사실에 놀랍니다. 그것은 장차 올 영광을 받기 위한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고난을 통한 보상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장차 나타날 영

광의 크기는 현재의 고난의 크기에 비교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땅에서의 찌르는 고질적인 가시가 나를 약하게 만들어도 그 때가 더 강해지는 체험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주의 은혜가 임하여 우리가 다른 세계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받은 하늘 기업의 상속자임을 주장하여 현재의 고난을 이깁시다.

## 목 피조물의 소원 (롬8:19-21) 찬 509장

사도는 왜 피조물이 탄식한다고 말합니까? 첫째,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나타남을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19) 모든 피조물은 완성될 구속의 날을 기다립니다. 요한은 이산 속의 피조물이 하나님의 보좌, 네 생물, 24장로, 천군천사 다음 순으로 둘러싸여 어린양께 찬양하는 장면을 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잃었던 질서가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들은 썩어 짐의 종에서 해방되기를 원했습니다. (20) 죄로 인해 생긴 모든 혼

란, 공허 그리고 어둠 안에 떨어진 인간은 일반은총을 섬기는데서 구속받은 백성만을 섬기는 영광에 참여하는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셋째, 그들은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21) 후사들을 섬기게 한 천사들은 만물과 함께 구속의 자유에 동참하기를 기다립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그 날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날의 영광을 내다 보며 소망 속에 살아갑시다.

## 금 속량의 은혜 (롬8:22-25) 찬 211장

속량이란 죄값을 대신 지불하여 회복시킨 일로 구원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 구속은 무슨 뜻입니까? 첫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22) 그 열매는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영광의 성령 (창1:2)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속에 일하심으로 구속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 그리스도란 것입니다. 이것은 그 첫 열매 속에 자기 백성의 구속을 포함시킨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원에 참여한 자는 복됩니다. 둘째, 양자의 자유를 누릴 날을 기다립니다. (23) 구속은 우리로 하나님의 친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영성

을 가짐으로 그의 양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신자는 이 땅에서도 자녀의 특권을 누리고 장차 올 완성된 그 나라의 양자의 자유를 기다립니다. 이것은 완전한 구속의 영광에 참여합니다. 셋째,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합니다. (24-25) 이 영광스러운 구속의 영광과 자유는 너무 귀하기에 이 땅에서는 볼 수 없으나 그 증거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세계의 영광을 소망함으로 현재의 고난을 넉넉히 견딜 수 있다고 사도는 말합니다. 그 소망으로 살아갑시다.

## 토 성령이 탄식 (롬8:26-27) 찬 174장

만물과 우리의 탄식은 구속의 성취할 날을 향한 것으로 제한되나 성령의 탄식은 우리의 구원 완성을 향해 깊이 탄식하십니다. 첫째, 그는 우리의 영적무지로 인하여 탄식하십니다. 기도할 바를 바로 알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을 도우십니다. 변화산 세 제자가 황홀경에 들어갈 때 초막 셋을 짓겠다는 것이 자기의 구할 바를 몰랐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는 오직 성령만이 바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그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십니다. 창조 전 성령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를 사랑으로 품고, 간구하신 것처럼 구속의 완성을 향해 탄식하심으로 우리의 구속을 이루십니다. 셋째,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십니다. 그의 탄식은 언제나 우리의 뜻이 아닌 성부의 뜻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것은 말씀의 가르침을 따른 간구라는 뜻입니다. 영원히 열납되는 참 간구의 예배를 주께 드리는 성도가 됩시다.

# 교회음악 이야기(35)



윤임상 교수 (월드미션대학교대학원)

## 팀 켈러, 그리고 마크 헤이즈의 “넉넉히 이기느니라”

팀 켈러(Tim Kaller, 1950-2023)가 쓴 “일과 영성”이란 책을 보면 성공의 첩바퀴를 향해 무작정 달리기만 하는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복음 안에서 일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최후에 남긴 말은 이렇습니다. “There is no downside for me leaving, not in the slightest 내가 떠남에 있어 미련은 없다, 아주 조금도 ...” 미국의 교회음악가 마크 헤이즈(Mark Hayes, 1953 - )의 성가곡 중 “넉넉히 이기느니라 (We are more than conquerors)”라는 음악이 있습니다. 이 곡이 팀 켈러 목사님의 사역 모토를 담은 듯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짧은 생을 지내며 고되게 일해서 대단한 결실을 얻었다손 치더라도 시점이 조금 빠르고 늦을 뿐 언젠가는 퇴색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그 가운데 진정한 평안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궁극적 평안의 근원. 그것은 곧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이란 사실을 여실히 보여 준다.” 우리의 일들은 그것이 크건 작건간에 언젠가는 모두 내려놓아야 합니다. 무슨 일이 되었든 그 가운데 복음을 통한 평안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것은 일에 기대어 자신을 입증하고 정체성을 지키라는 압력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이 곡은 사도바울의 말씀 중 두 부분 롬 8:37-39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리고 엡 6:10-12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를 텍스트로 삼아 음악을 통해 그 안에 담긴 내용을 마크 헤이즈 작곡가가 아주 효과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역동성, 리드미컬함, 추진력(dynamic, rhythmic and driving)을 여실히 드러내며 텍스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빠른 템포, 엷박자의 리듬과 다이내믹의 극적인 사용을 통해 다양한 톤 컬러를 드러내게 하여 끊임없이 감정을 고양시킵니다. 이런 요소들을 통해 우리가 영적 전쟁에 직면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는 약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저해하려는 요소들을 저항하게 하는 소중한 메시지로 가슴에 담게 하는 찬양입니다.

“자신이 가진 영향력을 출세의 수단으로 보는 대신 못사람들을 섬기는 데 쓸 수도 있다. 예전보다 더 큰 위험을 감수하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궁전에서 한없는 아름다움과 영광에 둘러싸여 사셨지만, 그 모두를 버려둔 채 자유했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을 물로 십자가에 바치게 한 그 사랑을 먼저 알고 그것에 반응하여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팀 목사님의 모든 글에 종결은 일관되게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가 몇 주 전 소천 되어 하나님의 품으로 안기시게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개혁주의 복음 신앙을 거리로 그리고 학계로 가져가서 역설을 펼쳤던 이 시대 진정한 목회자였습니다. 그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던 목회자였다는 사실이 그의 책들 속에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가 쓴 책 “내가 만든 신”에 보면 “예수님 만으로 충만함을 알려면 우선 예수님밖에 남는 것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고백의 말이 그의 소천 과정에서 충분히 드러납니다. 그가 소천 되기 하루 전날 이런 고백을 하였다고 합니다. “I can't wait see Jesus, send me home” 그리고 그가 소천되며

iyoon@wmu.edu



“사람은 기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입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1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모든지점 - 대형 파랑장 준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워싱턴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 신코 펴기 인도

인도 마니풀 주에서 15년 만에 다시 대박해가 일어나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목사님과 성도님, 시련을 통하여 성도의 거룩한 열매를 맺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다시 문안 드립니다.

최근 인도에서 15년 만에 대박해 사건이 북동부 마니풀 주에서 일어났습니다. 대부분 힌두로 구성된 메이테이(Meitei) 그룹과 크리스찬으로 구성된 쿠키(Kuki) 그룹 간에 땅과 정부 혜택 및 권리에 관한 충돌로 인하여 시작하였으나 그 이후 힌두 정부의 지원을 받는 힌두 그룹들이 두 그룹에 속한 크리스찬들을 박해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나온 기독교 정보로는 100 교회 이상이 불태워졌고, 200명 이상의 교인들이 죽었고, 80 마을 이상이 불태워졌고, 1,560 이상의 집들이 불태워졌으며, 극심한 박해를 받은 성도들이 모든 소유물을 포기하고 이웃 도시나 산속으



로 피신하여 캠프에서 거주중이라고 합니다.

상당수의 성도들이 잠옷을 입은 채로 피신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음식과 옷과 피신 장소로 인하여 고난 중에 있다고 합니다. 더구나 마니풀 주의 220 이상의 교회들이 주일 학교, 주일예배, 기도회로 모일수 없고 설교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더 주님을 찾으려 더 무릎 꿇는 계기가 되어 극복할 수 있도록, 그들의 필요가 충족 되어지도록 함께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 5월 28일에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 사역지 도시의 세 교회 14명의 세례 받는 성도들과 함께 40명이 참여하여 잘 치루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시길 기도 드립니다.



### 기도 제목

1. 인도 북동부 지역 마니풀 주의 대박해 사건을 잘 극복하여 오히려 복음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2. 지난 5월 28일 세례 받은 14명의 성도들이 견고한 믿음의 삶을 유지하도록.

3. 노이다 지역의 농촌 세 교회에서 핍신도 지도자들이 일어나고 도시 교회들이 앞으로 자립적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되도록.

4. 오디샤 주의 교회 없는 수많은 농촌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특히 사역지 나브랑그푸르 지역).

박정일 선교사 드림

## 자신의 설교한 은혜를 삶을 통해...

(3면에서 계속)

켈러는 대니얼 스트레인지의 말을 빌려 이 과정을 "전복적 성취"라고 불렀다.

넷째, 켈러가 이전에도 여러 번 주장했듯이, 그는 핍신도들이 그들의 믿음과 열매를 통합하도록 격려했다. 비기독교인들이 일상의 삶을 다르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믿음을 반드시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그는 미국인들이 다른 나라의 교회들로부터 배워야 함을 장려했다. 켈러는 2017년 프린스턴 신학대 강연에서 미국 내 보수적 복음주의자들이 자신의 방법론에 너무 많은 신앙이라는 요소를 집어넣고, 미국의 국익과 별개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인정했다.

여섯 번째, 켈러는 은혜와 종교의 차이를 강조했다. 리처드 러브레이스가 1972년 고든콘웰신학교의 첫 수업에서 켈러에게 보여준 것처럼, 선교에서 사회적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은, 종교의 규칙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이다. 오직 은혜만이 영적 변혁을 가져온다. 하나님의 영을 제외한다면, 우리

는 타락한 세상에서 지속적 변화를 가져오기에 무기력한 존재이다.

켈러가 만약 젊은 시절 가족과 함께 뉴욕으로 건너가 리더며 교회를 개척하는 대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머물렀다면 그는 분명 교수로서 뛰어난 명성을 얻었을 것이다. 그는 자신을 거들먹거리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갖춘 좋은 책들과 강연으로 큰 돈을 벌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켈러를 목회자로 부르셨고, 이것이 그를 차별화시켰다.

심지어 켈러는 복음주의자들을 질책할 때도, 양떼를 사랑하는 목자의 심정으로 강연하고 글을 썼다. 켈러의 유일한 멘토인 에드먼드 클로니는, 그가 지역 교회를 사랑하되, 그들의 결점들까지 모두 사랑하도록 도왔다. 잘 알려지지 않은 학자나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들이 인용한 것처럼, 그는 지역 교회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리고 리더며 교회 초기의 폭발적인 성장과 9/11 이후의 암울한 시절의 또 다른 성장 속에서, 켈러는 성령이 예기치 못한 그러나 강력한 방식으로 역사하

시는 것을 목격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켈러는 미국 복음주의자들에게 우리 문화의 사회적 범주에 영향을 주는 기독교 공동체에 대한 비전을 남겼다. 이런 강력한 공동체들은 복음의 변혁적 능력에 신뢰성을 준다.

켈러는 래리 허타도가 쓴 '우상들의 파괴자: 로마 세계에서 초기 기독교인들의 특별함(Destroyer of the gods: Early Christian Distinctiveness in the Roman World)'을 인용했다. 이 통찰력 있는 연구에서 허타도는, 박해받는 초대교회가 어떻게 유대인과 그리스인들에게 공격적이지 않았는지를 보여준다. 더 나아가 초대 교회는 매우 매력적이었다.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은 아이들을 입양함으로써 낙태와 영아 살해를 반대했다. 그들은 보복 대신 용서했다. 그들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았다. 그들의 엄격한 성윤리는 여성과 아이들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힘을 실어 주었다.

기독교는 적대적인 국가들과 민족 집단들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감당했다. 그리스도는 모든 부족과 언어와 나라를 위한 하나님을 보여 주심으로, 종교와 민족 집단의 폐쇄적 연결고리를 끊으셨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이 교회 내의 지리, 국적, 민족성

을 뛰어넘는다. 그 결과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문화든 비평할 수 있는 관점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문화가 배어 있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의 비판에 귀를 기울이는 법도 배웠다.

팀 켈러는 프린스턴 신학대학교에서 이 강의를 하는 대신, 행정부에 도전하고, 강연을 취소할 수도 있었다. 만약 그랬더라면 동료 보수 복음주의자들로부터 더 큰 관심과 지지를 얻었을 것이다. 그의 사역을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모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켈러는 그의 가르침을 실천으로 옮겼다. 그는 수년간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이 세속주의의 편협함과 종교의 부족주의에 명확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는 아직 복음주의자들이 켈러의 조언을 받아들거나, 그의 모범을 따랐다는 광범위한 증거를 보지 못했다. 편협함은 더 큰 편협함을, 적대감은 더 큰 적대감을 야기한다.

그러나 나는 성령이 우리에게 또 다른 각성의 복을 주신다면, 우리 교회들이 켈러가 꿈꿨던 것, 즉 은혜만이 종교와 세속주의가 뒤엉킨 길 가운데 새로운 길을 다시 한 번 찾게 해 주실 것임을 볼 수 있을 것이라 추측해 본다.

세계 곳곳에 있는 소수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국가명  
인도

▲ 종족명  
까닉까란 종족

▲ 인구  
19,000명

▲ 종족의 종교 상황  
힌두교 98.5%, 기독교 1.3%, 이슬람교 0.1%, 기타 0.1%

▲ 복음 매체  
성경 번역 필요, 복음 녹음 있음

▲ 종족 프로파일  
케랄라와 타밀 나누 지역의 정글이나 주변에서 주로 농사를 지으며 낚시와 사냥도 한다. 20세기에 일부는 정부가 만든 식민 정착촌으로 옮겨졌다. 마을의 중요한 문제는 원로들이 공동으로 결정한다.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생활 양식이 크게 변하고 있다. 주로 힌두교를 믿는다.

▲ 기도제목  
1. 까닉까란어 성경이 번역되어 어둠에 갇힌 까닉까란족이 빛 가운데로 나와 하나님을 알도록  
2. 음악을 좋아하는 이들에게 음악을 통해서도 복음이 전해지도록

(GBT 성경번역선교회)

# 담임목사 청빙 광고

민음과 사랑으로 함께하는 살렷 베넬 교회에서 함께할 담임 목사를 찾습니다

살렷 베넬 교회는 ARP 교단 제일 노회 소속이며 노스 캐롤라이나 살렷에 위치 하고 있고 깊은 믿음과 사랑으로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현재 담임 목사님께서서는 지난 27년동안 우리교회를 헌신적으로 섬기시고 은퇴를 하시게 되었기에 열정적이고 전문적인 차기 목사님을 찾고 있습니다.

### 자격 요건:

- 성경적인 교리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지식을 가진 자
- 한국어와 영어 모두 능통한 자
- 영주권자 나 시민권자 로써 이민법상 신분에 문제가 없는자
- ARP 교단에서 인정 한 학교의 M Div. degree 이상 소유자
- ARP 교단 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거나 인준 기준에 결격 사유 없는자
- 이민교회 목회 사역 3년 경력 이상 (전도사 포함 5년 이상)
- 미국과 한국에서 신학 공부 한자

### 제출 서류:

- 이력서 (사진과 가족사항 포함)
- 자기소개서 (사역 경험과 목회 비전 포함)
- 목사 안수증명서
- 출입증명서 또는 학위 증명서
- 설교영상

원서 접수 마감일: 2023년 7월 31일

관심있는 분은 서류를 아래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제출하고자 하는 자료들이 있다면 함께 첨부해 주세요. 제출된 서류는 청빙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반환을 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의 지원을 기다리며,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의껏 검토한 후 개별적으로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빙위원회 위원장 이민혁 장로 email: bethelkc7121@outlook.com Cell: 704-724-2465

## 살렷베넬교회 청빙위원회

7121 Delta Lake Dr, Charlotte, NC 28215 | (704) 566-7173

# 한인 커뮤니티를 위하여 여러 정신건강 전문가와 기관들이 함께 준비한 한인 정신건강 워크샵

1차  
세미나

일시: 5월 12일부터 6월 16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30분  
장소: American West University  
1818 S. Western Ave. #203 LA CA 90006  
후원: 재미한국노인회

날짜	주제	강사
5/12 (Fri)	불안장애 Anxiety Disorder	수잔 정 박사 카이저 정신과 닥터
5/19 (Fri)	양극성 장애 Bipolar Disorder	김경준 박사 월드미선대학교 상담심리학 교수
5/26 (Fri)	우울증 Depression Disorder	수잔 정 박사 카이저 정신과 닥터
6/ 2 (Fri)	약물 중독 Addiction	한영호 목사 나눔 선교회 대표
6/ 9 (Fri)	강박 장애 Obsessive Compulsive Disorder	김경준 박사 월드미선대학교 상담심리학 교수
6/16 (Fri)	죽음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나승렬 목사 Salt 4 Co-Chair / 약속의 교회

### 워크샵 참석 베네핏

- 1) 한국어와 영어로 된 정신건강 정보 안내서 무료 증정
- 2) 세미나 후 10명의 한국어와 영어가 가능한 정신건강 네비게이터들이 상담을 통해서 도움이 필요한 기관에 영어로 서비스 신청 대신 해 줌.
- 3) 간단한 간식과 음료 제공

### 프로젝트제공



LOS ANGELES COUNTY  
DEPARTMENT OF  
MENTAL HEALTH  
hope. recovery. wellbeing.

ASK

Good Life Care  
Resource Center  
3388 W. 8th St. #103 LA CA 90005

Korean Navigation Mental Health Project  
컨설턴트 (Consultant) : 김효철 (Hyocheol Kim)  
213.820.8855 | khckjo@gmail.com



인/터/뷰

### 해외한인장로회 총회장 서명성 목사(팔로마한인교회)

## “하나 됨을 이루기 위해 겸손과 온유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총회를 섬길 것”

해외한인장로회(KPCA) 제47회 총회가 '하나 되게 하소서(요 17:20-26)'라는 주제로 지난 5월 16일(화)부터 18일(목)까지 남가주동신교회(담임 백정우 목사)에서 개최됐다. 이번 총회에 총

회장으로 당선된 서명성 목사와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목회철학과 총회의 비전을 들어 보았다.



서명성 KPCA 총회장

1. 총회장으로 당선된 소감을 말씀해주세요.

목회를 하면서 언젠가 총회장이 되어 보겠다는 생각을 해 본적은 없습니다. 제가 속한 노회의 노회원들이 총회장 후보로 저를 적극적으로 추천하셨지만 사실 선뜻 내키지는 않았습니다. 제 기질로 보아 사람들 앞에 나서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단체를 이끌어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스타일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총회가 어려울 때 누군가는 나서서 해결해야 할 텐데 이 일을 하도록 부름 받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점차로 하게 되었습니다. 적지 않은 부담감이 있지만 일 년 동안 총회장으로서 직무를 잘 감당하려고 합니다.

기는 건강한 총회가 되도록 힘 쓰겠습니다. 총회와 관련된 재판 건이 있어서 총회 기간 중에 열린 논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 전권위원회가 발족되었으니 진솔한 대화를 통해 회복과 치유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돕겠습니다. 금년 총회 주제를 “하나 되게 하소서”로 정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 됨을 이루기 위해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총회를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3. 이번 총회가 예년 총회에

총회에 참석했습니다. 특히 해외에 있는 총대들 중 많은 장로 총대들이 비대면으로 참석했습니다. 여성교회 연합회원들도 참석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PCK) 총회에서 11명의 임원진 전원이 내빈으로 참석했고, NCKPC 총회에서도 총회장과 사무총장이 참석해서 총회 개최를 축하했습니다. 남가주동신교회가 총회를 잘 치를 수 있는 훌륭한 인프라를 제공하였고 총회준비위원회의 헌신적인 섬김이 있었기에 은혜롭게 총회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로부터 인구 유입이 급격히 줄어든 상황이 가장 큰 교회 성장의 저해 요인이라 생각합니다. 더구나 3년의 팬데믹 기간을 지나면서 그야말로 우리 생애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위기를 목회적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0년 교회 역사를 볼 때 고난의 이유는 다름지언정 고난이 없었던 때는 없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음 세대 사역과 관련되어 KPCA 교단에서는 차세대 목회위원회가 있습니다. 총회 산하 교회 중 교회학교가 없거나 사역자가 없는 교회를 위해 “KPCA

있었습니다. 이 사역을 통해 참여하는 다음세대의 숫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함께 참여한 교사들이 훈련되어서 각 지

에 개척해서 28번째 섬기고 있습니다. 부흥할 때도 있었지만 위기도 여러 차례 맞이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사역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밖에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저는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드라이브 한 적은 없습니다. 매년 교회를 위해 기도를 하다보면 주님이 감동을 주시고 그 감동이 비전이 되어 신년도 교회 표어가 되었고 그것을 교회 차원에서 실천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교회”가 제가 섬기는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합한 목회자, 진실한 목회자, 섬기는 목회자가 되려고 애를 씁니다.

(박준호 기자)

### “예수님을 보여주는 교회가 섬기는 교회의 존재 목적 이를 이루기 위해 주님의 마음에 합한 목회자, 진실한 목회자, 섬기는 목회자가 되려고 최선을 다해”

2. 앞으로 총회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총대들로 구성된 총회에서 목회자나 선교지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다룬다보니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그로 인해 갈등도 생깁니다. 목회 상황이 어느 때보다 어렵고 세상이 보는 교회의 이미지가 점점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총회의 존재 목적에 부합하는 총회, 역동적으로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

비해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3년 동안의 팬데믹을 공식적으로 마감하고 처음으로 모인 총회인지라 예년보다 많은 282명의 총대들이 대면으로 참석했습니다. 그와 더불어 66명의 총대들이 zoom을 통해

4. 한국 교회에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출산 시대에 접어들면서 그 현상은 두드러져 보이는데요. 다음 세대에 대한 사역방침 같은 것들이 있는지요?

이민교회 상황에서는 한국과 같이 저출산보다는 한국으

총회 연합 교회학교 온라인 플랫폼” 사역을 2022년부터 시작했습니다. 키즈(1-6학년)와 틴즈(7-12학년)로 나누어 Zoom을 통해 매 6주 단위로 구성되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7개 노회가 시범운영대상노회로 선정되었다가 총회 산하 전체 노회로 확대되

교회 교회학교를 세워 가는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총회 차원에서 이 사역을 지속적으로 후원할 예정입니다.

5. 목사님의 목회 철학은 무엇인가요?

팔로마한인교회를 1995년

### 베드로 진서 1



김경진 목사 (빌라델비아교회 은퇴목사)

### 왜 진서인가?

진서라는 글을 시작하면서 혹시 진서에 어떤 다른 의미가 주어져 있을까 하여 인터넷을 찾아보니 중국의 진나라의 기록을 담은 역사서로 진서가 있었다. 당나라 태종 때 20여명의 학자가 동진서진의 역사를 기록하였고 이

를 시발로 전왕조의 역사를 쓰는 것이 나라의 임무가 되었다고 한다.

얼마나 역사가 변조되지 않고 확실한 이야기만 쓰여졌는지 알 수 없으나 혹자는 분량만 방대하지 별 것이 없

다고 비난하기도 하고 괴이한 기록이나 이상한 것들도 기록되어 있어 역사서로서는 부족하며 고증에 문제가 있다고 비웃기도 한다. 그러나 그만큼 그 방대한 자료를 모은 것만해도 대단하지 않은가 하고 칭찬하기도 한다.

내가 진서라 함은 어떤 역사적인 면에서 남기려는 글이 아니고 50년의 목회를 끝내고 진정 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 그리고 그전에 몰랐으나 은퇴하고 난 뒤 새로운 시선으로 보고 느낀 것을 진솔하게 써보려고 시도하는 습작이라 하면 어떨까? 특히 과거 발간한 세 권의 책 중 한 권은 베드로 엮서였고 하

나는 베드로 우화였기에 이제 다른 이름을 붙일만한 제목이 없어 베드로의 진서라 하여 이 글을 쓰는 것이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내 이름의 마지막 자자를 따서 감경진이 쓰는 글이란 뜻으로 해보았다.

revpeterk@hotmail.com



Joon Mo Myung GASTROENTEROLOGY

## 여러분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빛이 되겠습니다

기분좋은 만남, 정성을 다하는 명준모 위장내과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진료를 약속드립니다.

### 진료과목

- 무통 위 내시경
- 무통 대장 내시경
- 조기 위암, 대장암, 식도암 진단
- B형, C형 및 각종 간염 진단/치료, 알코올성 간염, 간 조직검사, 지방간
- 각종 소화기 질환
- 최신 특수컴퓨터 비디오 내시경 시설

### 메디케어 및 각종보험 취급

- 120대 주차장 완비
- Q28, Q13 버스정류장 앞



**Joon Mo Myung, M.D.**  
 - NY Hospital of Queens 일반내과/위장내과 Faculty  
 - Ohio 종합병원 다년간 경험 풍부  
 - Virginia Commonwealth University 위장내과 전문의 수료  
 - Baylor College of Medicine 일반내과 전문의 수료  
 - New York University 임상연구